

지역재생, 상호문화, 치유 "地域再生, 相互文化, 治癒"

2023 4단계 BK21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일 시 2023. 12. 8(금) 09:30-17:30

| 장 소 ZOOM (ID 880 4526 4774)

| 주 최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
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 후 원 한국연구재단, 강원대학교

지역재생, 상호문화, 치유

"地域再生, 相互文化, 治癒"

[Session1]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 학문후속세대 학술대회

09:30-09:40(10")	[개회사] 유강하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
09:40-10:00(20")	아동학대 가해 부모 대상 인문케어 프로그램 사례 연구 고혜진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10:00-10:20(20")	이주배경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서현주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10:20-10:40(20")	이야기와 정체성 그리고 치유에 대한 고찰: 『파친코』속 '선자'를 중심으로 조성미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10:40-11:00(20")	영화<퍼스트리펀드>를 활용한 인문치료상담사례 -50대 후반 여성내담자의 상실경험을 중심으로 정윤진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11:00-11:20(20")	신화적 상상 속 치유적 의미 고찰-영화 <날씨의 아이>를 중심으로 양송이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11:20-11:40(20")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우순미 (강원대학교 인문치료학과)
11:40-12:00(20")	[종합토론]
12:00-13:00(60")	[휴식]

[Session2]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 국제학술대회: 국내·외 학자 발표

13:30-13:40(10")	[개회사] 유강하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 [축사] 김영순 (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장)
13:40-14:30(50")	[기조강연] 중국 전통의 의학적 사유와 그 신화적 의미 종종센 (대만, 국립대만사범대학교) 통역: 이석구 (연세대학교)
14:30-14:40(10")	[휴식]
14:40-15:10(30")	카자흐스탄의 인도주의적 과정의 역할: 아스타나 IT대학을 중심으로 아나르 위즈바예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IT 대학)
15:10-15:40(30")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박 안토니나 (우크라이나, 우신스키국립사범대학교)
15:40-16:10(30")	상호문화소통을 통한 다문화부부 갈등중재 실행연구 권요셉 (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16:10-16:40(30")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문학적 돌봄의 필요성 연구: 철원군 양지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한나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
16:40-17:10(30")	[종합토론]
17:10-17:30(20")	[폐회] 유강하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

2023 4단계 BK21 교육인문협력학과 국제학술대회

지역재생, 상호문화 치유

CONTENTS

SESSION 1. 학문후속세대 발표

고혜진
아동학대 가해 부모 대상 인문케어 프로그램 사례 연구 005

서현주
이주배경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015

조성미
이야기와 정체성 그리고 치유에 대한 고찰: 『파친코』속 ‘선자’를 중심으로 022

정윤진
영화 <퍼스트리폼드>를 활용한 인문치료 상담사례-
50대 후반 여성내담자의 상실경험을 중심으로 037

양송이
신화적 상상 속 치유적 의미 고찰-영화 <날씨의 아이>를 중심으로 045

우순미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052

SESSION 2. 기조강연

종종센
중국 전통의 의학적 사유와 그 신화적 의미 061

SESSION 3. 해외학자 발표

아나르 위즈바예바
카자흐스탄의 인도주의적 과정의 역할: 아스타나 IT대학을 중심으로 063

박 안토니나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 가능성 067

SESSION 4. 국내학자 발표

권요셉
상호문화소통을 통한 다문화부부 갈등중재 실행연구 073

이한나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문학적 돌봄의 필요성 연구:
철원군 양지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078

Session 1

학문후속세대 발표

- 아동학대 가해 부모 대상 인문케어 프로그램 사례 연구
고혜진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 이주배경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서현주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 이야기와 정체성 그리고 치유에 대한 고찰: 『파친코』 속 ‘선
자’를 중심으로
조성미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 영화 <퍼스트리폼드>를 활용한 인문치료 상담사례:
50대 후반 여성내담자의 상실경험을 중심으로
정윤진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 신화적 상상 속 치유적 의미 고찰-
영화 <날씨의 아이>를 중심으로
양송이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우순미 (강원대학교 인문치료학과)

아동학대 가해 부모 대상 인문케어 프로그램 사례 연구

고혜진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 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 2023 4단계 BK21 교육인문협력학과 국제학술대회

아동학대 가해 부모 대상 인문케어 프로그램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humanities care program for child abusive parents

-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내담자 A를 중심으로 -

고혜진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통합과정)

목차

1. 들어가며
2. 연구방법 및 내용
 - 2.1. 이론적 배경
 - 1) 인문치료
 - 2) 분석심리학
 - 2.2. 아동학대 재발 방지 인문케어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3. 연구결과
4. 마치며

들어가며

인문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소외’는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며, 마음의 병은 대부분 소외로부터 기인한다. 인문치료에서 말하는 ‘소통’의 개념은 일상의 대화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순한 의사전달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넓은 의미의 소통이란, 한 개인이 관계하는 모든 것과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소통은 개인과 개인 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그가 속한 집단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이기도 한 것이다.

관계 대상과의 상호 작용인 소통은 한 개인의 내면에서도 존재하는데, 특히 한 개인의 내면적 소통은 인문치료가 주목하고 있는 소통의 형태다. 인간은 내면에 여러 모습의 자아를 품고 있으며, 그 각각의 변화무쌍한 순간적인 모습들은 모두 한 개인으로서의 총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이다. 이 구성요소들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개인은 건강할 수 있고, 이 다양한 자아들 간의 건전한 공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내면적 소통이다.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소통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개인은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심지어는 소통의 대상들로부터 소외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면적 소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다양한 자아들 중 특정 자아에 대한 거부 감정은 내면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한다.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인문치료가 우선 접근해야 할 것으로는 소통 장애에서 비롯된 마음의 고통, 자존감 부족, 자아정체성 혼돈 등에서 비롯된 심리적 고통, 인지적 문제, 사회 환경적 문제 등이 있다. 소통 장애는 나와 소통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와 남과의 소통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2. 연구방법 및 내용

2.1. 이론적 배경

1) 인문치료

인문치료란, 마음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인문 정신과 인문학적 방법으로 관련 학문의 치료적 힘과 원리를 학제적으로 활용하여 사람들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고통과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일체의 활동이다.

인문치료의 범주와 학문 분류를 설정하여 구분하는 것은 여러 층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치료 행위의 **시행 대상**을 중심으로 분류해서 상술하면, 의료적 의미의 치료는 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나 인문치료는 학교, 교도소, 군부대, 상담실, 청소년센터, 복지센터, 자활센터, 탈북민센터, 다문화센터, 병원, 재활원, 요양원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인문치료는 일반적인 치유에 가까운 인문치료 외에도 예방적 인문치료, 발달적 인문치료를 포괄한다.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인문치료의 유형은 치료 대상의 단위별로 개인치료, 집단치료, 사회치료로 나눌 수 있다. **개인치료**는 개인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것이고, **집단치료**는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이며, **사회치료**는 재소자·노숙자 등 사회적인 문제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회집단 혹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이다.

인지적 문제에서 비롯된 심리적 고통은 세계관이나 인생관, 가치관, 잘못된 생각 등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사회 병리 등에서 비롯된 개인의 사회적 고통의 문제는 계층 문제, 인종 문제, 문화적 문제, 특수집단(교도소, 소년원, 군부대, 노숙자 집단, 병원)의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마음의 문제나 고통, 불편함 등이 인문치료의 구체적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ㄱ.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 호모 나렌스(Homo Narrance)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야기를 하거나 듣고 싶어 하는 욕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왔다. 이야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원시적인 특징, 욕망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때로 역으로 인간의 삶을 만들기도 한다. 이야기는 인간의 삶, 가치, 추억, 기억과 접촉하고 소통하면서 그 의미를 무한히 확장해 나간다.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 완전한 허구일지도 모르는 **이야기**는 인생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것이 허구라 하더라도 이야기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이해하며, 사람과 세상을 소통시킨다. 이야기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야기가 인간을 만들기도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생각과 마음, 꿈과 눈물을 담아온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든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삶에 대한 다채롭고도 진지한 해석, 어쩌면 수많은 신화들은 다시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유강하, 2017)

ㄴ. 자기성찰 글쓰기

자기성찰 글쓰기는 자기 탐색, 자기 표현, 자기 서사, 치유의 글쓰기, 글쓰기치료 등으로 일컬어지는데, 자기 성찰 글쓰기에서 '자기'는 정신분석학의 자아(ego)보다 큰 개념이다. **자아**는 정신분석이나 분석심리학에서는 의식된 성격의 부분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인간의 심리를 조절하려는 기능을 말한다. 본능과 같이 원시적이고 조직되지 않은 충동을 조직화하고, 초자아의 충동을 조정하여 충동들을 현실적으로 만족시키도록 한다. 자아는 현실에 근거한 판단과 조정의 기능을 한다. **자기성찰 글쓰기**에서 **자기**는 본능, 자아, 초자아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이다.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는 자기 표현, 자기 기술 등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해와 자기 성찰, 자기 치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하여 **자기성찰 글쓰기**라고 명명하였다. 자기성찰 글쓰기는 자기 이미지, 사고, 자기 서사 등을 맘껏 표현하고, 탐색함으로써 자기와 소통을 하고, 자기 이해를 통합적으로 유도하여 성찰에 이르는 글쓰기이다.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2.1. 이론적 배경

2) 분석심리학

ㄱ. 개성화 과정

융은 이성(異性)의 경향과의 동화는 리비도를 전진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이 과제는 무의식과의 통합, 즉,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다. 또한 무의식의 의식으로의 통합은 치유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C. G. 융, 2006)

ㄴ. 그림자

그림자가 무의식적 인격의 전부는 아니며, 자아의 전혀, 혹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속성을 나타낸다. 이 속성은 개인에게 고유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쉽게 의식화하기도 한다. 어떤 점에서, 그림자는 사생활의 외적인 데서 온 보편적인 요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 개인이 자기의 그림자를 대면하려고 할 경우, 그는 그 그림자를 통해 타인에게는 발견되었을 터이지만 자기로서는 있는 줄도 모르던 성질이나 충동을 만나고는 당혹해하거나 부끄러워하기도 한다.

그림자는 이기심이나 정신적 나태나 무신경일수도 있고, 비현실적인 공상, 음모, 책략일 수도 있고, 부주이나 비겁, 혹은 정도를 넘는 금전욕이나 소유욕 일 수도 있다. 요컨대 <별 것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테니까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면서 마음에 접어 두었을 검임에 분명한 사소한 죄악이 바로 그림자의 모습이다. (카를 G. 융 외, 2020)

2.2. 아동학대 재발 방지 인문케어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1) 연구대상 A

연령	40대 남성
가족관계	배우자, 딸1, 아들1
전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 중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 - A의 아버지는 혼자만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인물로, 딸들에게는 다정하였고, 아들인 A에게만 엄격했고 매를 들었음. - A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여 아동학대치료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음.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보호관찰소에서 연계해주는 가족상담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였으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2) 연구도구

ㄱ. 문장완성검사(SCT: Sentence Completion Test)

문장완성검사는 문장이나 단어를 제시하고 수검자가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검사로 최근 들어 전통적인 임상 영역 외에도 교육, 상담, 법정, 인사 선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검사는 직접적으로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와 달리 간접적으로 수검자의 특성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검자는 주어진 문항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평상시 갖고 있던 생각, 신념, 태도, 공상, 정서적 갈등 등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이우경, 2021)

ㄴ. 풍경구성법(LMT : Landscape Montage Technique)

풍경구성법은 투사그림검사의 기법으로 1969년에 나카이 히사오(中井久夫) 교수에 의해 소개 되었다. 로르샤흐 검사와 같이 패턴을 읽고 선택하고 해석하는 투영적 표상과는 대조적인 방법으로 4면이 테두리로 그어져 있는 구조화된 공간에 통합적 지향성을 지닌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구성적 표상을 기초로 한 방법이다. 검사의 지시 방법은 강, 산, 밭, 길, 집, 나무, 사람, 꽃, 동물, 돌이나 바위 등 10가지 요소를 지시에 따라 그림 그리고, 더 그리고 싶은 것을 추가해서 그리도록 한 후 채색을 통해 풍경을 완성시킨다. 해석 방법은 풍경 전체의 통합성, 분화성, 공간성 등을 검토하여 각각의 의미를 모래상자 치료의 해석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옥금자, 2007)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B시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내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명령 대상자를 위한 '아동학대 재발방지 인문케어 프로그램' 참여 교육생의 자기수용 및 효과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수강명령 담당자로부터 프로그램 의뢰를 받고(2023년 5월), 본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담당자와 시간 및 운영방식을 정하였고(2023년 8월), 본 연구는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에 걸쳐 진행된 총 28시간의 아동학대 재발방지 인문케어 프로그램(부제: 건강한 삶을 위한 열다섯 걸음) 참여자 A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프로그램 시작 전에 참여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및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진행되었다.

매 회기 당 2시간씩 진행되었고, 첫째날과 마지막 날 1시간씩 진행된 부분만 (1H)로 표시하였다.

4) 아동학대 재발방지 인문케어 프로그램(부제: 건강한 삶을 위한 열다섯 걸음)

회기	프로그램명	회기별 목표	주요 활동 내용
1	첫 걸음: 내 마음 건강 검진	- 긴장감 완화 - 프로그램 안내 및 라포 형성 - 사전검사 실시	- 별칭 짓기 - 각자의 별칭에 대해 나누고 상호 인사 - 프로그램 유의사항 안내 - 사전검사 실시(LMT, SCT)
2 (1H)	두 걸음: 건강한 삶의 기초, 건강한 마음과 소통에 대하여	- 아동학대 정의 - 소통의 중요성 알기 - 기억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생각해 보기	- 아동학대란? - 기억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 소통의 종류와 중요성에 대하여
3	세 걸음: 내 마음 건강 검진 결과 해석	- 사전검사 해석 - 내 마음 자가진단 - 그림자(Shadow)의 개념 알기 - 마음 돌봄의 중요성 깨닫기	- 사전검사(LMT, SCT) 해석 - 내 마음에도 바람길이 필요해 - 나를 이루는 그림자는?

건강한 삶을 위한 열다섯 걸음 - 둘째날

회기	프로그램명	회기별 목표	주요 활동 내용
4	네 걸음: <상사뻘 설화>로 알아보는 내 마음	- 설화 리텔링 과정에서 드러난 자신의 마음 알아차리기 - 공감 능력 향상	- <상사뻘 설화> 리텔링하기 - 설화 속 등장인물이 되어 각각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기
5	다섯 걸음: 내 안의 그림자	- 기존 문학 재창조하기 -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자신의 방식 알아차리기 - 내 마음속 그림자 탐색하기	- 시 고쳐쓰기 활동 -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나의 태도에 대하여 - 나를 이루는 그림자 중 해결되지 못한 감정 탐색, 인지하기
6	여섯 걸음: 건강한 소통 1 (나와의 소통)	- 사진에 투사된 내 마음 읽기 - 자신과의 소통의 중요성 알기 - 나의 그림자 알아차리기 (가족 관련)	- 사진으로 내 마음 들여다보기 - '지금, 여기'에 있는 내 마음 알라주기 - 나를 이루는 그림자 중 가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인지, 수용하기

건강한 삶을 위한 열다섯 걸음 - 셋째날

회기	프로그램명	회기별 목표	주요 활동 내용
7	일곱 걸음: <장자뿔 설화>로 다시 쓰는 내 마음	- 등장인물에 투사되는 자신의 감정 알아차리기 - 공감 능력 향상	- <장자뿔 설화> 리텔링 - 리텔링 과정에 드러난 자신의 감정(욕망과 후 회) 발견하기 - 설화 리텔링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8	여덟 걸음: 건강한 소통 2 (내 감정과 올바른 소통하기)	- 인간의 욕구 이해하기 - 부정적 감정의 존재와 가치 이해하기	- 인간의 부정적 감정에 대하여 - 감정과 반응의 관계 - 불안과 예민은 나쁘기만 할까?
9	아홉 걸음: 건강한 소통 3 (타인과 안전하게 소통하기)	- 라소용 효과 - 하나의 사건에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기 - 의사소통 능력 향상	- 하나의 상황 속 각기 다른 입장 되어 보기 - 이야기 속 인물을 변호해 봄으로써 타인의 마음 이해, 공감하기 - 안전한 방식으로 요청과 거절 주고받기

건강한 삶을 위한 열다섯 걸음 - 넷째날

회기	프로그램명	회기별 목표	주요 활동 내용
10	열 걸음: 그림으로 내 마음 알아차리기	- 그림에 투사된 나의 마음 알기 - 우울한 감정의 존재 이유와 대처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	- 빛속의 사람 그림 검사(PITR검사) -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 그리기 -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 나타나는 것들
11	열한 걸음: 내 마음의 리트머스	- 나의 가치관 찾기 -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그림자 탐색 - 자극과 반응의 관계 이해하기	-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안경 찾기 -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그림자는? - 나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나 상황을 조절 하기 위한 방법 찾기
12	열두 걸음: 건강한 소통 4 (나, 타인에게 사과 와 감사 표현하기)	- 사과 표현해 보기 - 감사 인사하기 - 건강한 방식의 소통 경험하기	- 설화 속 인물이 되어 사과 편지 쓰기 -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고마웠던 사람에게 감사와 축복의 말 전하기 - 건강하게 칭찬하고, 기쁘게 수용하기

건강한 삶을 위한 열다섯 걸음 - 다섯째날

회기	프로그램명	회기별 목표	주요 활동 내용
13	열세 걸음: 나의 감정 역사서	-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감정 알아차리기 - 안전하게 감정 표출해 보기	- 내 감정과 관련된 용의 반응 알아차리기 - 감정 파이 만들기 - 나만의 감정 서사 정리하기
14 (1H)	열네 걸음: 마음 건강 백신	- 불편한 마음도 수용하기 - 부정적 상황에 대한 나만의 대비책 나누기(지지와 격려)	- 바람은 다시 불어오지만 - 나에겐 백신이 있고 - 우리의 백신은 강하다
15	열다섯 걸음: 마음 건강 검진2	- 사후검사 실시 및 해석 - 내 안에 내재된 긍정적 변화 가능성 인정하기 - 긍정적 미래관 확립	- 사후검사 실시(LMT, SCT) 및 해석 - 일주일간 나는 어떻게 변했을까? - 미래 인생 그래프 그리기

3. 연구결과

- 첫째 날, 라포 형성을 위한 별칭 정하기 시간에 A는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곳으로 별칭을 짓는 시간에 '벚꽃' 이라고 하였으며, 봄에 피는 화려하고 따뜻한 느낌이 좋아서 이 꽃이 좋다고 함.
- 사전검사(풍경구성법, 문장완성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A는 가장 먼저 활동지를 작성하고, 다른 참여자들이 작성하는 것을 관찰하거나 강사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임. 시간이 충분하니 천천히 해도 좋다는 강사의 말에 '제가 원래 성격이 급해서 저보다 일을 느리게 하거나 제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답답해한다' 고 대답함.
- A는 내내 강사에게 예의있게 대하여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였지만, 흥미를 느끼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사전검사에 대해 해석해줄 때부터 흥미를 보이기 시작함.

<표 1> A의 사전검사 중 문장완성검사 중 일부

연번	A의 응답
1	내가 바라는 인간상은(책임감 있고 어딜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2	아버지는 (아들인 나에게는 엄하셨고 세 딸들에게는 따뜻했던,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3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예의 없고 책임감 없고 무성의한 행동이다).
4	어렸을 때 나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고, 나의 행동에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5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가족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이다).
6	내가 행복하려면 (가족이 행복해야 한다).
7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 A는 위에서 알 수 있듯, 대인관계나 사회에서 '책임감', '예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가족'에 삶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가장 엄하게 대해서 두려웠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끝까지 보살피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표현하였으며, 어린 시절 자신에 대해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고 표현하였다.
- 이후 상담에서 A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엄하게 훈육을 받으며 맞기도 했고, 그때는 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었지만 지금 아버지가 되어 보니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고 답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다.
-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막중한 무게가 느껴져서 A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상담자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아버지의 무게'인 것 같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표 2> A의 사후검사 중 문장완성검사 중 일부

연번	A의 응답
1	내가 바라는 인간상은(인자하고 따스한 사람).
2	아버지는 (나에게는 매우 엄하신 하지만 가족을 많이 사랑하신 분).
3	어렸을 때 나는 (개구쟁이, 말쑥꾸러기. 되돌아보니 호기심 많은 아이, 꽤나 똑똑한 아이였다).
4	내가 만일 (아버지 유년시절로 여행할 수만 있다면 태어날 아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라고 하고싶다).
5	나는 (잠시 쉬고 싶다).
6	나의 미래는 (평안할 것이다).

- A는 프로그램 마지막 날 진행된 사후검사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 및 미래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사전검사서 자신이 바라는 인간상은 '책임감 있고 어딜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사후검사에서는 '인자하고 따스한 사람'으로 변하였고, 어린시절 자신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고, 나의 행동에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던'아이라는 평가에서 '개구쟁이, 말쑥꾸러기. 되돌아보니 호기심 많은 아이, 꽤나 똑똑한 아이'로 바뀌었다.
- 아버지에 대해서도 '엄하고 책임감 있던 분'이라는 평가에서 '엄하지만 가족을 많이 사랑하신 분'으로 바뀌었으며, 내가 만일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면 철없는 40대였을 것'이라던 문항에서는 '내가 만일 아버지 유년시절로 여행할 수만 있다면, 태어날 아들(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라고 하고 싶다'로 바뀌었다. 자신의 그림자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A는 '어린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성된 기억이 생각보다 오래가는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이 어릴 때 제일 무서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잘 모르겠다'던 회피적인 태도는 '평안할 것이다'로,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나는 '40대이지만 질풍노도의 청소년 같다'던 문장은 나는 '잠시 쉬고 싶다'로 바뀌며 처음으로 '자신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마치며

인문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소외’**는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며, 마음의 병은 대부분 소외로부터 기인한다. 인문치료에서 말하는 **‘소통’**의 개념은 일상의 대화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순한 의사전달 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소통은 **한 개인의 내면**에서도 존재하며 특히 **한 개인의 내면적 소통**은 인문치료가 주목하고 있는 소통의 형태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되는 ‘아동학대치료강의’ 의뢰를 받아, 아동학대 재발방지 인문케어 프로그램(부제: 건강한 삶을 위한 열다섯 걸음)을 진행하면서 참여자 A를 중심으로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자신도 어린시절 아버지로부터 폭력적인 훈육을 받으며 성장해 온 A는 결혼 후 자신의 딸에게는 자상한 아버지이지만, 아들에게는 엄하고 폭력적인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프로그램 진행중에 ‘자신이 어린시절 겪었던 일들을 아들에게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고 자평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인문치료에서 주목하는 소통(나 자신과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과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심리학 중에서 ‘그림자’ 개념을 기반으로 구성된 인문케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아동학대치료강의를 듣게 된 수강생들에게 법리적인 해석이나 강의식 진행보다는,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 및 자신의 깊은 곳에 얽혀 있을 그림자들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자기자신과의 화해에 도달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자신과의 소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타인과의 갈등이 없거나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자신과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과의 갈등도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것이 넓게는 인문치료 중 ‘사회치료’에 해당하는 개념이자, 개개인에게는 ‘마음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인문 정신과 인문학적 방법으로 관련 학문의 치료적 힘과 원리를 학제적으로 활용하여 사람들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고통과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인문치료의 정신이자 목표일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되는 수강명령 강의를 인문치료적 방식을 융합한 인문케어 프로그램으로,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수강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프로그램이 아니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참여자들의 개인 사정이 생기면 프로그램 도중에 그만두거나 도중에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자 파악이 어려워 사전, 사후 검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치료강의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에 정보전달과 윤리적 교훈을 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프로그램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인문 정신과 인문학적 방법으로 관련 학문의 치료적 힘과 원리를 학제적으로 활용하여 사람들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고통과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수정되고 연구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A는 프로그램 마지막 날 참여소감에 ‘나의 문제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내 본질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중략) 나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내가 유연하고 여유 있어야,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 하였다.

참고 문헌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치료 소통 사례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2014.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치료의 이론적 담론』, 강원대학교 출판부, 2017.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치료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7.
- 로버트 존슨, 제리 롤, 신선해 옮김, 『내 그림자에게 말 걸기』, 가나출판사, 2020.
- 옥금자, 『미술치료 평가방법의 이론과 실제』, 하나의학사, 2007.
- 유강하, 『고전 다시 쓰기와 문화 리텔링』, 단비, 2017.
- 이우경, 『SCT 문장완성검사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2021.
- 조성미, 유강하, 고혜진, 이소정, 김학찬, 『설화 리텔링을 통한 자기탐색과 자기이해』,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1, 2022.
- C. 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융 기본 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숲, 2006.
- -----, 『융 기본 저작집 5: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숲, 2018.
- C. G. 융, 조성기 옮김, 『카를 융 기억 꿈 사상』, 김영사, 2021.
- C. G. 융, Henderson, Joseph L, Franz, Marie-Luise von, Jaffe, Aniela, Jacobi, Jolande, 이윤기 옮김,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2020.

중도입국청소년의 주체성 발현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질적연구

서현주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BK21 교육인문협력학과 국제학술대회

중도입국청소년의 주체성 발현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질적연구

인하대학교 · 다문화교육학과 · 박사과정 · 서현주

목차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이론적 논의
 - 1) 중도입국청소년의 이해
 - 2) 집단표현예술치료
 - 3) 중도입국청소년의 주체성과 집단표현예술치료
 3. 연구방법
- 참고문헌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체성 발현을 위한 표현예술치료 변화단계를 탐색하고, 집단의 상호작용과 표현예술의 치료적 요인을 활용한 창조적 연결행위를 바탕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의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참여경험에서 나타난 주체성 발현의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다인종 다문화인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을 모색하고 돕는데 목적이 있다.

•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사람을 뜻하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 유형으로 새로운 형태의 이주민 집단이다(김승렬, 2020). 중도입국청소년 부모의 대부분은 이주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 및 재결합, 노동,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자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 입국을 결정하게 된다(김성천, 2010). 중도입국청소년의 큰 특징은 한국 출생이 아닌, 모국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하여 비자발적이고 준비 없는 이주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중도입국청소년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요구와 영역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정체성 논의로 확장되었다.

둘째, 중도입국청소년 적응의 다양한 영역은 생애 발달 과정과 연관이 있으며 효과적인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중재 시 연
령분포 및 구성원의 동질성을 확보한 맞춤형 예술치료 실행이 중요하다.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주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다문화 상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프로그램 설계가 필
요하다. 넷째, 중도입국 청소년은 적응 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긍정성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
다. 따라서 적절한 중재적 개입을 통해 이들의 정서적 치유를 촉진하고 정체성 회복을 넘어 주체적으로 내적 역량을 강화
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문제

1. 중도입국청소년의 주체성 발현을 위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 한가?
2. 주체성 발현 관점에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2. 이론적 논의

1)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징

•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 및 사회적 특징으로 이들의 학교 교육기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허용되며 한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할 때
학교장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구속력 있는 조항이 없어 학교장이 거부할 경우 입학이 어려웠다(류방란, 오성배,
2012; 조영달, 2006). 이는 2020년에 와서야 입학신청방식을 학교장에서 교육장 배정으로 변경하여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다문화가족정책, 2020). 현재 중등교육기관의 학교 운영 방향 이 입시 준비와 성적 향상에 집중 되어있어 한국어
소통이 서툰고 학습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수용을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다(류방란, 2012).

•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특징은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 준비 없는 이별 경험으로 인해 상실과 애도에 대한, 해결
되지 않고 억압된 정서, 이중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언어소통의 제약으로 인한 부적응 및 자립과 독립에 대한 부담을 가
진다. 이로 인한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체성 혼란은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정서 문제 유발과 사회관계의 상호작용에서 위
축, 회피 등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 부적응은 개인의 개인적으로 성장 발달의 저해요인이
되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김명정, 2011; 김인, 2021; 한은진, 2013).

2. 이론적 논의

2) 집단표현예술치료

•집단표현예술치료는 집단치료와 표현예술치료를 결합한 한 심리치료의 형태로 집단원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개인
예술창작이나 협동 작업을 수행하고 함께 공유한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능력과 사회관계를 경험하며 사회기술을 향상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혜선·원희량, 2020).

•집단치료에 대해 Yalom은 '희망 심어주기', '보편성', '정보 전달', '이타주의', '초기 가족의 교정적체험', '사회화 기술 발
달', '모방 행동', '대인관계 학습', '집단 응집력', '실존적 요인', '정화'를 제시하며 이를 인간이 집단치료의 상호 보완적인
과정에서 경험하는 치료적 요인이라 하였다(Yalom & Leszcz, 2008).

•집단치료는 자기인식과 표현의 기회, 또래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 습득을 위한 안전하고 자유로운 심리·
사회적 장으로의 경험을 제공한다.

2. 이론적 논의

2) 집단표현예술치료

- 표현예술치료란 예술 창작과 치료적 작업을 통합한 심리치료로 창조적 생명력을 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진숙, 2001).
- 일반적으로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음악치료 등을 칭하며 창조성을 경험하고 성장과 치유를 촉진하는 지지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작, 드로잉, 회화, 조소, 음악, 글쓰기, 소리, 즉흥극, 시, 영화 등을 이용한다. 다양한 표현예술매체를 활용하여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을 자극하고 탐색하여 미처 인지하지 못하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돕는다(김명철, 2007).
- 집단표현예술치료의 창조적 연결 원리는 서로 다른 예술의 형태가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Halprin, 1996; Halprin, 2003)
- 즉, 신체동작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심상은 글쓰기나 드로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대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느낌 및 감정으로 연결되고 한 가지 예술은 다른 형태의 예술을 자극하고 증강시킨다(유나래, 2016).
- 결과적으로 예술형태의 연결과정에서 억압된 층을 벗겨내고 개인의 창조력의 바탕으로 몸, 마음, 정서, 자신의 깊은 내면과 만나도록 한다(Rogers, 2007).

2. 이론적 논의

2) 집단표현예술치료

-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은 비언어적 예술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상호작용하는 창조적 연결 과정에서 자기탐색과 자기이해를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억압된 내면 정서 개방, 공감과 지지 및 수용을 경험하며 문제를 해결하며 치유와 변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일상의 환경에 대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다(오영애·최명선, 2019; 이임숙, 2016).
- 이 중 문화적응, 언어소통의 제약, 가정해체와 재결합 및 학업에서의 좌절 등 심리 사회적 다중의 어려움과 언어소통의 제약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비언어적 예술매체와 움직임 동작을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표현할 수 있다.
- 중도입국청소년에게 표현예술치료를 경험하는 자체가 치유과정이며 예술을 통한 새로운 언어를 창출한다(전태욱, 2008)
- 중도입국청소년이 자신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적절한 중재라 할 수 있다 김미경, 2020; 성수나, 2021; 조월미, 외, 2019).

2. 이론적 논의

3) 중도입국청소년의 주체성과 집단표현예술치료

- 주체성 발현을 위해 선행되는 정체성에 대한 개념은,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는 다양한 측면으로 외부요인이나 사회적 맥락에 의해 형성되고, 자신을 독립적이고 심리적으로 일관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 주체성이란 인간이 어떤 일을 실천하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로 자신에 대한 의식·주관성을 깨닫고 표현하는 것이다.
- 따라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주체성은 개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감정과 정체성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한다.
- 중도입국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자각이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면 스스로의 생각·목적, 판단을 뚜렷하게 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가는 주체성에 따르게 된다. 주체성을 발현하면 자신의 가치와 능력 및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높게 평가하며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기 실체를 일상의 삶 과정에서 나타내게 된다(최상진, 2000).
- 중도입국청소년이 정체성 혼란의 상황, 이중문화 스트레스와 언어소통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후 삶에서 주체성을 발현하는 것은 이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정체성 확립과 성장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정체성을 실천하는 주체성 발현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주체성 발현은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

3. 연구방법

1) 질적 사례연구

•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사례연구에서 사례는 '경계 지어진 체계' 또는 연구의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례가 시간과 장소에 의해 제한되며 범위를 갖는 경계 지어진 체계에 관한 연구이다(Creswell, 2007).

• 사례연구가 가지는 주요한 특성은 제한성, 맥락성, 구체성, 복잡성, 현재성 등이 있으며(유기웅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이라는 특정 집단이라는 경계 지은 제한성을 가지며 본 사례를 통해 집단 표현예술치료 활동이라는 구체적인 현상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구체성을 지닌다.

• 또한 프로그램에서 수집된 예술작품, 작품 설명 자료, 소감문, 음성녹음 파일, 연구자 노트, 참여관찰 일지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활동 중에 자기인식과 자기표현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나타내고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 주제성의 실천적 현상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밖에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어떠한 주제성 발현 경험을 하는지에 주목한 현재성을 보인다.

3. 연구방법

2) 연구참여자

• 프로그램에 참여할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해 2023년 6월 7일부터 수도권에 위치한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의 다문화 전담 교사와 1차 대면 및 비대면 면담을 진행한 후 두 곳 모두 프로그램의 목적 및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후 프로그램 진행 시기 및 프로그램 운영 환경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A 고등학교를 연구지로 결정하고 2023년 6월 26일 학교장을 비롯한 교감, 담당 부장 교사, 다문화 전담 교사 등 총 4명과 2차 대면 면담을 거쳐 최종 연구 협조 허가를 받았다.

•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해 2023년 7월 14일 A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재학 중인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 대부분이 CIS 국가 출신인 관계로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러시아어 자막의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홍보 동영상 함께 시청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등 라포를 형성하며 연구 참여를 독려했다.

• 이 밖에, 러시아어로 작성된 학부모용 프로그램 홍보 인쇄물을 배부하여 중도입국청소년 및 보호자의 이해와 동의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프로그램 모집공고 후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고등 1, 2학년 8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나, 1회기 후 개인 사정으로 하차 의사를 밝힌 1인을 제외하고 7명을 연구참여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3. 연구방법

2) 연구참여자

•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에 소재한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이상의 중도입국청소년 7명이다. 한국에 이주한 나이는 10~15세로 다양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기본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기본정보

연구참여자	성별	출생 연도	입국 연도	입국 시 나이	현재 나이	국적	가족 관계	이주 목적	한국어 능력
굴민우	여	2006	2019	13	17	카자흐스탄	모	부모결정	보통
베트면	남	2006	2021	14	17	카자흐스탄	부모누나	부모결정	보통
스파이도맨	남	2006	2021	15	17	우즈베키스탄	부모누나남동생	부모결정	보통
위스키	여	2005	2017	11	18	우즈베키스탄	모	부모결정	보통
제키한	남	2006	2021	14	17	러시아	부모·여동생	교육 목적	잘함
전시	여	2005	2015	10	18	러시아	부모·언니·여동생 2	부모결정	매우 잘함
한아타	남	2007	2021	14	16	카자흐스탄	모·여동생 2	부모결정	어려움

3. 연구방법

2) 연구참여자

• '굴민우'는 하얀 피부에 웃는 인상으로 보통의 키와 체격을 가진 여학생이다. 2006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출생하여 13살인 2019년에 부모의 결정으로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평범한 인상과는 달리 초록과 금발을 섞어 염색한 헤어스타일과 입술 피어싱 등 과감하게 외모를 꾸렸다. 한국어 능력은 보통이라고 했으나 말하고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별칭은 좋아하는 과일인 굴을 그렸으며 자신의 본명과 발음과 유사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기대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얻어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 '베트맨'은 까무잡잡한 피부에 다소 마른 체격으로 키가 작은 남자학생이다. 2006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출생하여 14살인 2021년에 부모의 결정으로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말이 거의 없으며 친구들이 다소 심하게 장난을 치더라도 '친구라서 어쩔 수 없다.'며 크게 반응하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한국어 능력은 보통이라고 했으나 한국어 이해와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기대하는 것은 '자신을 더 개발하여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3. 연구방법

2) 연구참여자

• '스파이도맨'은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키에 다소 마른 체격을 가진 남자학생이다. 2006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생하여 15살인 2021년에 부모의 결정으로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첫 회기 프로그램을 마친 후 치료사를 도와 조용히 청소를 돕는 등 친화적 태도를 보였다. 한국어 능력은 보통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수줍음을 많이 타며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기보다는 집단원들의 결정에 그대로 따르거나 자신의 의견 제시를 포기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별칭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스파이도맨을 생각하며 지었다고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기대하는 것은 '아직 몰라요.'라고 하였다.

• '위스키'는 긴 머리에 둥그란 얼굴로 다소 통통한 체격의 여자학생이다. 2005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생하여 11살인 2017년에 부모의 결정으로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프로그램 초반 회기에 치료사에게 '고려인들이 2017, 2018년에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많이 이주하였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위스키'의 한국어 능력은 말하고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목소리의 높낮이가 없이 작은 편이며 감정표현이 거의 없다. '위스키'는 평소애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리며 보건실에서 지내거나 조퇴가 잦은 편이다. 별칭의 의미나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점 모두 '그냥'이라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3. 연구방법

2) 연구참여자

• '제키찬'은 키가 크고 하얀 얼굴에 웃는 인상으로 활기 있는 모습의 남자학생이다. 첫 회기부터 치료사에게 다가와서 자신이 통역을 해 줄테니 걱정말라고 하는 등 사교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며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많이 드러냈다. 2006년에 러시아에서 출생하여 14살인 2021년에 교육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하였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한 편이다. 별칭 짓기에서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섞어 쓰며 과시하듯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홍콩의 유명스타 이름을 본 따서 별칭을 완성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기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기 시작하고 싶다.'고 하였다.

• '천사'는 다소 까무잡잡한 피부에 긴 머리를 한 예쁜장한 얼굴의 여자학생이다. 2005년에 러시아에서 출생하여 10살인 2015년에 부모의 결정으로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한국어 능력은 매우 잘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으며 다른 집단원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잘 전달하지 못하는 이야기의 의미와 맥락까지 치료사에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나이에 비해 다소 어른스러운 태도와 말투를 사용하며 매번 지쳐 있는 모습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자신의 별칭을 설명하며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착해서 천사예요.'라며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기대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고 하며 어른스러운 태도와 달리 착한 천사를 원하는 등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3. 연구방법

2) 연구참여자

• ‘한아타’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매서운 눈매를 가지고 있으며 집단원 중 가장 어린 나이지만 키가 크고 체격조건이 좋은 남자 학생이다. 2007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출생하여 14살인 2021년에 부모의 결정으로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운동에 소질을 보이며 대회우승을 하는 등 이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 우월한 체격조건으로 인해 또래 관계에서 다소 위협적으로 행동한다.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치료사에게 매우 방어적인 태도와 공격적인 말투를 쓰며 별칭을 지을 때도 처음에는 자신의 러시아어 애칭으로 지었다가 ‘한아타’라고 변경하고 의미는 설명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에 자발적인 참여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등 자기 개방을 꺼리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3. 연구방법

3) 자료수집

- 본 연구는 2023년 9월 12일 부터 12월 19일까지 주 1회, 회기당 90분, 총 12회기의 반 구조화된 표현예술심리치료로 수도권에 소재한 A 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연구참여자과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동의서를 받으며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표현예술치료 경험이 풍부한 예술 심리 상담전문가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 다양한 자료의 수집은 사례연구의 질적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Yin, 2013).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모든 회기를 녹음하여 회기 별 대화 내용 및 예술작품 사진, 소감문을 수집하였다.
-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을 위하여 예술심리 상담을 전공한 예술심리 상담사 1인이 보조 참여자로 참여하여 진행 과정에 대한 사진 촬영과 참여 관찰지를 작성하였다. 이 밖에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능통한 통역자 1인을 배치하여 프로그램 진행 시 원활한 소통을 도왔으며 연구자가 프로그램 진행 과정의 대화를 녹취하고 전사록을 작성하였다.

참고문헌

- 김명정(2011).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교육문화연구학회지, 17(2), 55-76.
- 김명철(2007). 창의성 측정 도구 고찰. 원광대학교 교육연구, 26(0), 43-75.
- 김미경(2020). 집단미술치료에 나타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자기표상 특성에 관한 정신분석적 이해. 정신분석심리상담, 4(-), 141-169.
- 김승렬·장안서(2021).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과 동태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중국계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1), 59-80.
- 김인(2021).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또래 애착 및 부모 양육 태도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22(1), 681-690.
- 성수나(2021).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지식융합연구, 4(1), 51-78.
- 오영애 · 최명선(2019). 조현병 여성 환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본 표현예술치료경험의 의미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22(3), 199-229.
- 유기웅·정종원·김영성·김한별(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유나래(2016). 동작중심 표현예술치료에서의 창조적 연결성 척도 개발 및 타당도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2(2), 49-74.
- 이임숙(2016). ‘이게 정말 나일까?’의 치료적 요인들: 알롱(Yalom)의 치료적 요인을 중심으로. 독서치료연구, 8(2), 105-121.
- 이혜선 · 원희량(2020).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을 겪는 초등학생의 사회성기술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7(3), 559-581.
- 전태욱(2008). 인간중심 표현예술치료. 재활심리치료의 실제, 157-163.

8. 참고문헌

조월미·이근매(2019).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안정에 미치는 영향. 임상미술심리연구. 9(3), 135-156.

최상진(2000). 한국인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do?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569&menu_nix=4o9771b7&edomweiv_gp=R. 2023.5.16.에서 인출.

한은진(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과정과 유형 분석. 한국 가족 자원 경영학회지. 17(2), 195-218.

Creswell, J. W.(2015). 질적 연구방법론 3편. (조흥식 · 정선옥 · 김진숙 · 권지성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7 출판).

Halprin, A.(1979). Movement ritual by anna halprin. Kentfield: Tamalpa Institute.

Halprin, A.(2003). 치유 예술로서의 춤 (임용자 역). 서울: 물병자리. (원저 2000 출판).

Rogers, N.(2007). 인간중심표현예술치료 (이정명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1993 출판).

Yalom, I. D., & Leszcz, M. (2008). 최신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최혜림, 장성숙 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본발간일 2005년).

BK21 교육인문협력학과 국제학술대회

감사합니다

이야기와 정체성 그리고 치유에 대한 고찰:
『파친코』 속 선자를 중심으로

조성미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I. 들어가며

소설 『파친코』는 2017년 출간된 이후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선정되고, 전미도서상(National Book Award)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 책은 4대에 걸친 재일조선인의 가족사를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일본 버블경제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다룬 책이다. 『파친코』는 현재 33개국에 번역 수출되었고, 2022년 3월 8부작의 웹드라마로도 제작되어 원작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파친코』라는 작품과 함께 주목받은 것은 이 소설의 저자 이민진(Lee Min Jin)의 삶이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로 196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다. 그녀는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했으며,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다 건강 문제로 일을 중단하게 되며 작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가 가진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은 추후 그녀의 작품 세계에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 마승혜·김순영(2022)은 사회학자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관점에서 작가 이민진을 분석한 바 있다. 그들은 소설 『파친코』의 집필 기반이 된 이민진 작가의 아비투스(habitus)¹⁾로 ‘이민자 정체성’, ‘한국인의 정체성’, ‘역사의 중요성 인식’ 등을 꼽았다. 또한 그녀가 가진 문화자본(capital)²⁾으로는 ‘역사 지식’, ‘연구력’, ‘필력(筆力)’ 등을 나열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그녀는 ‘한국인 디아스포라 3부작’을 계획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작품은 2007년에 출간된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이라는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재미한인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범 소수자 서사 및 신화를 부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는다(나보령, 2022). 두 번째 작품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파친코』이다. 이 작품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일뿐 아니라 다양관 관점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소설이기도 하다.³⁾ 이는 소설 『파친코』가 다양한 층위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작품이며, 독자에게 폭넓은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입체적인 텍스트임을 방증한다. 세 번째 소설인 『아메리칸 학원(American Hagwon)』은 현재 집필중에 있다.

『파친코』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설 『파친코』는 좁게는 ‘자이니치(在日)⁴⁾에 대한

- 1) 아비투스는 개인의 과거 양육 및 교육과 같은 과거경험과 그 개인이 현재 속한 환경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같은 현재 상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행동, 인지, 판단과 같은 “성향체계”(disposition)를 말한다(김현생, 2016; 마승혜·김순영, 2022).
- 2) 부르디외가 말하는 ‘자본’은 행위 주체인 개인이 지배 정당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동원하는 모든 수단을 말한다. 부르디외는 네 가지 자본을 언급하는데 이중 문화자본은 양육 및 가정 교육으로 체화되거나 학력 등을 말한다(마승혜·김순영, 2022).
- 3) 2023년 7월 7일 기준,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에서 검색된 소설 『파친코』에 대한 연구로는 국내학술연구가 21건(서평, 학술대회 발표집 제외), 학위논문 2건이 있다. 이는 소설 『파친코』에 대한 집계이며, 드라마 <파친코>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다.
- 4) ‘자이니치(在日)’는 ‘재일조선인’이라는 뜻으로,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일본에 살게 된 조선인과 그 자손을 총칭한다(徐京植, 2012:8). 재일조선인은 크게 ‘한국 국적 소지자’, ‘조선적 소지자’, ‘일본 국적 소지자’의 세 부류로 나뉜다. 여기서 ‘한국 국적’ 소지자란 사실상, ‘한국 국민’과 거의 동

서사로서 연구되었고(오탈영, 2021; 양명심·신인섭, 2023; 장영우, 2022), 크게는 이산문학⁵⁾으로 포괄하여 연구되기도 하였다(김미영, 2022; 나보령, 2022; 마승혜·김순영, 2022; 손영희, 2020). 이 중 손영희(2020)는 『파친코』가 “한국문학, 재일교포문학, 재미교포문학 등 어느 한 범주에 소속되기를 거부하고 그 경계를 해체하는 작품”이라며,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의 스펙트럼을 확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외에도 『파친코』는 소설에 나타난 ‘장소’ 또는 ‘공간’에 초점을 맞춰 연구되거나(김영삼, 2023; 임진희, 2019; 장희동, 2023; 전현주, 2022), 젠더적 관점(강유진, 2023; 이경재, 2021)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파친코』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대부분 ‘정체성’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정체성 문제는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것처럼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이야기(narrative)’를 토대로 『파친코』 속 ‘선자’의 정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Lee Min Jin, 2022:15)⁶⁾라는 소설의 첫 문장은 독자들로 하여금 “왜?” 또는 “그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이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시작되었으며, 그 답을 ‘인간에게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상정한다. 이는 ‘내 삶이라는 이야기에서 찾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파친코』라는 작품을 통해 이야기가 역사 속 개인의 정체성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고, 그것이 삶에 미치는 치유적 영향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재일조선인’과 같이 “어떠한 연유에서 어떠한 구조에 의해 스스로의 아이덴티티가 분열되어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막연한 불안과 긴장을 강요당하고 있는”(徐京植, 2006:27) ‘경계인’들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치유해나가는 데 이야기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장에서는 이야기와 정체성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며, 이야기가 한 개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유용한 도구 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소설의 주인공인 선자를 둘러싼 이야기를 분석하고,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볼 것이다. 작품 속 많은 인물 가운데 선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그녀가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10년대부터 1989년까지의 시간을 모두 경험한, 가족사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⁷⁾ 소설에서는 그녀의 탄생부터 노년기(73세)까지 삶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인물의 일생에 나타나는 정체성 변화의 과정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볼

일한 의미이다(徐京植, 2006:20). ‘일본 국적 소지자’는 일본으로 귀화한 조선인을 말한다. ‘조선적’을 가진 재일조선인은 현재까지도 사실상 무국적 상태로, 자각적으로 북한의 국민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시 조선은 하나’라는 생각을 소중히 간직하려는 사람들, 재일조선인이 형성된 역사의 기록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자발적 난민으로서 기꺼이 불리한 지위를 택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단지 기재변경을 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등 다양한 입장이 뒤섞여 존재한다(徐京植, 2006:23-24).

- 5) ‘이산문학’이란 다양성·타자성·혼종성·다문화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주자의 삶과 정체성을 그린 문학으로서, 민족국가의 영토를 벗어나 이주국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문학을 일컫는다. 이산문학은 디아스포라문학·이주문학·이민문학으로도 불린다. 이 중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은 일반적으로 재외한인문학 혹은 해외동포문학을 일컫고 있지만 이는 작가에 초점을 맞춘 정의이다. 따라서 재일, 재미, 재중, 재러작가의 작품과 해외입양인문학 그리고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주인공으로 그들의 디아스포라적 의식이나 디아스포라 현상을 다룬 국내작가들의 작품들도 광의의 이산문학으로 볼 수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 6) 이후 소설 『파친코』 속 인용문들을 제시할 때에는 권수와 쪽수만 괄호 안에 제시하기로 한다.
- 7) “이 소설은 가족연대기 소설답게 한 인물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고 세대를 거치면서 중심인물이 이동한다. 서사는 양진에서 선자를 거쳐 그의 아들인 노아, 모자수의 이야기로 서서히 바뀌는데, 이 가족사에 중심이 되는 인물은 선자이다.”(강유진, 2023).

때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나아가 그녀는 노년기에 이르러 자신이 겪은 일들을 하나의 이야기로서 조망하며 그것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 정체성을 부여하는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선자가 본 연구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인물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역사가 저버린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주인공 선자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라는 것이 역사적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치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정체성과 이야기

에릭슨(Erikson)(1980)은 자아정체성이 자기다움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며, 내적 심리 과정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 생겨나는 대인관계의 과정이라고 보았다(구자경, 2016에서 재인용). 에릭슨이 자아정체성을 하나의 ‘과정’으로 본 것처럼, 자아정체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삶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본고에서는 자아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야기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구자경(2016)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정체성을 구성하고, 또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우리는 성찰에 의해 자신의 지속적인 이야기를 생산해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과 이야기 간의 관련성에 대해 그것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야기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폴 리코르(Paul Ricoeur)는 철학자가 있다. 그는 “시간은 서술적 양태로 엮임으로써 인간의 시간이 되며, 이야기는 그것이 시간적 실존의 조건이 될 때 그 총만한 의미에 이른다”라고 주장하였다(Ricoeur, 1999:125).

리코르는 『시간과 이야기1』 제1장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제11서를 검토한다. 리코르는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의 연장을 정신의 이완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인간의 시간 경험을 “세 겹의 현재의 한가운데, 즉 미래의 현재와 과거의 현재, 그리고 현재의 현재 사이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균열과 이완”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Ricoeur, 1999:61). 이로써 그는 인간이 경험하는 사건들이 ‘불협화음(discordance)’의 세계임을 말한다. 이 세계는 무질서와 균열의 세계이다.

한편, 그는 같은 책 제2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는 뮈토스(mythos, 줄거리)와 미메시스(mimesis, 재현) 개념을 차용해, 그것들이 시간 체험의 불협화음을 ‘화음(concordance)’의 세계로 바꿀 수 있는 장치임을 설명한다. 그는 ‘사상(事象)들의 배열’이라는 ‘뮈토스’의 정의 자체가 화음을 강조한다며, 이것이 곧 사건의 순서에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를 탄생시킨다고 보았다. 이 화음은 완결성, 전체성, 그리고 적절한 범위라는 세 가지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Ricoeur, 1999:96).

이처럼 주체는 이야기함으로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을 이해하고, 이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리코르는 이를 가리켜 ‘이야기 정체성’이라 명명했다(Ricoeur, 2004:471).

자기 이름으로 지칭된 행동의 주체를,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늘어나 있는 삶 전체에 걸쳐 동일한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대답은 서술적일 수밖에 없다. “누가?”라는 물음에 답한다는 것은, 한나 아렌트가 역설했듯이,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야기된 스토리는 행동의 누구를 말해준다. ‘누구’의 정체성은 따라서 서술적 정체성⁸⁾인 것이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 안에서 새로운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Simms, 2009:12). 그러므로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인식 또는 자기 이해와 연결된다.

제임스 페니베이커(James W. Pennebaker)는 “우리의 생각이나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자신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도 이야기가 필요”(Pennebaker, 2007:93)하다고 했다. 삶에서 경험된 파편적인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자신만의 언어로 설명해 나가는 과정은, 자기의 고유한 목소리를 찾고 사건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삶의 주체성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이해의 과정에는 타인이 쓴 이야기를 단순히 감상하고 이해하는 소비의 차원을 넘어서, 이야기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자기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생산하는 과정까지가 포함될 수 있다(유강하, 2011). 인간은 이처럼 이야기의 수용과 생산을 반복하며 자기 이해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 개인에 의해 수용되고 생산된 ‘이야기’는 그가 가진 ‘정체성’ 분석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에는 재혼가정 성인자녀, 재독 한인 광산노동자, 재미 교포 1세,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대상에게 이야기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구자경, 2016; 김태희·김종백, 2016; 양영자, 2015; 이정은, 2014; 정성미, 2017).

Ⅲ. 고생길에서 순례길로: 선자의 여정

약 80여 년에 이르는 시간을 아우르는 이 소설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인 「고향」은 1910년~1933년까지를, 2부인 「모국」은 1939년~1962년까지를, 3부인 「파친코」는 1962년~1989년까지를 담아내고 있다.

부산 ‘영도’라는 섬의 가난한 집안에서, 장애가 있는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선자는 열여섯 살에 유부남 ‘고한수’의 아이를 임신하고 미혼모가 될 위기에 처한다. 이 때 목사 ‘백익삭’이 등장하여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둘은 혼인하여 일본 오사카로 떠난다. 그들이 일본에서 자이니치로서 살아가는 삶은 차별과 고통으로 얼룩졌으며, 이 과정에서 선자의 아들 ‘노아’는 자살하고 만다. 이처럼 소설에서 선자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으로 이주하여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가며 역사의 풍파 속에서 갖은 고생을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본 장에서는 먼저 선자가 ‘장애’, ‘여성’, ‘자이니치’라는 요소 때문에 경험한 고생의 사건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이야기를 통해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8) 『시간과 이야기 3』(김한식 옮김) 번역본에서는 ‘narrative identity’를 ‘서술적 정체성’이라고 번역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직접인용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야기 정체성’으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갖게 되고,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 내면이 치유되는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1. ‘불구의 피’를 물려받은 삶

소설은 1910년 일제가 강제로 조선의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은 한일강제병합 시기를 시작으로 한다. 선자의 조부모는 부산의 영도라는 작은 섬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인물들로, 소설에서 이들은 ‘늙은 어부와 아내’(vol.1, p.15)로 표현된다. 또한 그들은 “궁핍하고 고단한 삶을 역척같이 살아내는 촌사람”(vol.1, p.16)으로 묘사된다. 그들의 조부모가 이름 대신 ‘늙은 어부와 아내’라고 간략히 기술된 것처럼, 선자의 집안은 이름있는 특출난 가문도 아니고,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다. 이는 이 소설이 ‘역사가 저버린’ 사람들 중 이런 민초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선자의 조부모가 낳은 자식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김훈’에게는 윗입술이 세로로 갈라지고 한쪽 발이 뒤틀린 채로 태어난 장애가 있었다. 선자에게는 그러한 장애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삶에서 장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 때문이었다.

훈이가 색시를 맞고 싶다는 뜻을 비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괜찮은 집안에서 다리를 저는 언청이와 딸을 혼인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자식도 기형아로 태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훈이 어머니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아들을 본 적이 없었다. 마을 처녀들 대부분이 훈이를 피했고, 훈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며, 참고 견뎠다(vol.1, p.18).

훈은 자식에게 장애를 물려줄 수 있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혼인 상대로서 기피되는 경험을 한다. 선자 또한 훈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아버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많은 마을 처녀가 혼인했는데도 선자 어머니는 혼인을 해야 한다고 성화를 부리지 않았다. 선자에게 청혼하려고 어머니를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선자에게 집적거리는 하숙인들은 진지하게 고려할 상대가 아니었다”(vol.1, pp.87-88). 선자는 본인이 아이를 임신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체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임신이라는 사건과 동시에 자신은 평범한 결혼을 할 수 없는 존재이자, 자식에게 장애를 물려줄 수도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즉, 선자에게는 ‘불구의 피’가 흐르는 것이었다(vol.1, p.142).

선자는 이유가 이것이었나 싶었다. 임신을 하고 나서야 아버지처럼 기형인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년 선자는 어려서 죽은 형제들의 무덤을 깨끗하게 돌보았다. 선자 어머니는 갈라진 입술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수는 건강한 아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선자가 그런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한수가 선자와 아이를 버릴까?(vol.1, pp.87-88)

여기서, 선자가 어려서 죽은 형제들의 무덤을 돌보며 어머니께 들었던 이야기는 자신의 임신을 계기로 재해석된다. 선자의 어머니는 죽은 자식 중에 갈라진 입술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는데, 선자는 그것이 죽은 자기의 형제들의 운명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현재진행형의 일이자 미래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선자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던 과거의 파편적인 사건이, 현재 ‘불구

의 피가 흐르는 존재'라는 선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이야기에 편입된 것이다. 그 결과, 선자는 장애로 인해 자신과 아이가 버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 이러한 감정은 선자가 한수에게 “아이가 딸이면 어쩔라고예? 아님 딸아이가 올 아버지처럼 태어나면예? 발이 구부러지고 윗입술이 없이 나오면예?”(vol.1, p.87)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2. 여성으로서 겪은 고난의 삶

선자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의 인생은 고생뿐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선자가 어릴 적 시장에서 만난 미역을 파는 아주머니는 앞으로 그녀의 삶에 닥칠 고난의 여정들에 대한 복선처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자야, 아낙네 삶이라는 게 끝없이 일하고 고생하는 기다. 고생 끝에 더 큰 고생이 온다꼬. 각오하고 있는 게 낫다. 이제 니도 여자가 된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해야겠다. 여인네가 잘 살고 못 살고는 혼례 올리는 사내한테 달려 있다. 좋은 사내 만나면 괜찮게 살고 나쁜 사내 만나면 욕보고 살고 그라는 기라. 어쩔거나 고생을 각오하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된데이. 세상천지에 딱한 여인네를 돌봐줄 사람은 없다. 믿을 거는 자신뿐인 기라.”(vol.1, p.52)

선자는 ‘순결한 몸’이 여성으로서 가져야 할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굶주리고 가난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의 순결은 때때로 돈의 가치로 환산되기도 했다. 선자의 어머니인 ‘양진’이 떠넘겨지듯이 모두가 기피하는 혼에게 시집 오게 된 이유도 바로 가난 때문이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굶주리고 있는 마당이니 처녀들이 식량을 구걸하는 것보다는 아무하고나 혼인하는 것이 나왔다. 게다가 순결한 몸은 비쌌다. 혼이의 신붓감인 양진은 딸 넷 중 막내였다. 양진은 너무 어려서 불평할 줄 몰랐고 제일 적게 먹기 때문에 떠넘기기가 가장 쉬웠다. (중략) “그집 식구들이 원체 가진 게 없어서 신부 몸값이 많이 떨어졌다 아닙니까.”(vol.1, pp.20-21)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이듬해 겨울은 건디기 힘들었다. (중략) 여자아이들은 국수 한 그릇에 순결을 팔았으며, 노인들은 젊은이들만이라도 끼니를 때우라고 죽을 자리를 찾아 몰래 떠났다(vol.1, p.26).

‘은장도’라는 물건으로 상징되는 여성의 정조관념은 유교적 전통에 따라 당시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자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위험은 항상 있었다. 귀한 집 아씨들은 몸을 보호하거나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자결하려고 은장도를 저고리 속에 숨기고 다녔다”(vol.1, p.61)라는 문장처럼 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위험은 도처에 있었다.

또한 아래와 같이 한수가 선자에게 한 말로 보아, 일제강점기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취업 사기를 당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징집될 위험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잘 들어. 혼자 다니거나 밤에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 혼자 장 보러 올 때는 큰길로만 다녀. 항상 사람들 보이는 데서 벗어나지 말고. 놈들이 지금 여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어.” 선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총독부 말이야. 일본 군인들을 위해 중국에 데려가고 한다고. 아무도 따라가지마. 여자든 남자든 가릴 거 없이, 조선인일 거야. 중국이나 일본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말할 거고. 네가 아는 사람일지도 몰라. 조심해.”(vol.1, p.60)

이러한 시대 상황은 여성의 사회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성들이 일찍 결혼하거나 더욱 가정 내에서만 머물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선자 또한 열여섯 살 때,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중 일본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험을 한다.

“이 요보⁹⁾ 가슴 좀 봐. 진짜 크네. 일본 여자애들은 이런 가슴들과 달리 섬세하지.” 더럭 겁이 난 선자가 찬거리를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걷기 시작했지만, 남학생들이 선자에게 바짝 붙어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큰 남학생이 오른손으로 선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 참외 아주 말강한데 너희 한 입 먹어볼래?” 남학생이 선자의 가슴에 가까이 대고 입을 딱 벌렸다. 작은 남학생은 선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바구니를 꼭 잡고서 두 손가락으로 선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비틀었다. 세 번째 남학생이 말했다. “다른 데로 끌고 가서 이 긴 치마 속에 뭐가 있는지 보자. 낚시는 집어치워! 애를 낚았잖아.”(vol.1, p.57)

한수는 이때 위험에 처한 선자를 구한다. 그는 오사카에 살고 있는 부유한 생선중개상으로 업무차 부산에 자주 들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자와 한수는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된다. 당시 선자는 열여섯 살이었고, 한수는 서른세 살이었다. 선자는 한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생활에 대해 이야기 할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한수는 선자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선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주었다. 또 영도와 부산 밖의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며 선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한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선자의 마음속에 한수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선자의 머릿속은 이제껏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는 사람과 장소가 나오는 한수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 (중략) 선자는 한수의 이야기와 경험에 빠져들었다. 한수의 경험은 먼 곳에서 온 어른들이나 노동자들이 들려준 모험보다 훨씬 특별했다. (중략) 한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생활에 대해 이야기 할 사람이 없었다. 하숙인들의 우스운 습관들, 어머니 밑에서 일하는 자매들과 나눈 대화들,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마음속 사소한 궁금증을 터놓을 데가 없었다. 이제는 영도와 부산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볼 사람이 생겼다. 한수는 선자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듣고 싶어 했다. 선자의 꿈이 무엇인지까지 알고 싶어 했다. (vol.1, pp.70-71).

이후 선자는 한수의 아이를 임신하고 그와 결혼할 마음으로 한수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한다. 한수는 선자의 임신을 기뻐하지만, 자신은 오사카에 부인과 세 딸이 있다고 말한다. 이를 안 선자는 충격을 받는다. 유부남이었던 한수의 아내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수를 사랑하긴 했지만, 그와 결혼하는 것은 선자에게 정직하지 못한 일이었다(vol.1, p.87). 그러나 선자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즉, 앞으로 미혼모로 살아갈 결심을 한 것인데, 선자의 어머니인 양진이 “여인네가 혼인을 안 하고 살기도 힘든데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다니예. 동네 사람들이 두고두고 욕할 겁니더. 그리고 성도 없는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적 신고도 못 한다 아닙니까.”(vol.1, p.97)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아, 당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9) ‘요보’는 원래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여보’라는 말인데 일본인이 조선인을 비하하며 욕으로 쓰고 있었다(vol.1, p.56).

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 한수와 만남은 선자에게 기쁨과 설렘의 시간으로 기억되었으나, 이제 선자는 그동안 한수와 나눴던 사랑의 시간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이를 통해,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그 사건이 이야기의 맥락 안에 어떻게 편입되느냐에 따라 그것은 전혀 다른 기억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자는 스스로에게 느끼는 수치심과 동시에,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부모님께는 죄책감을 느낀다. 아래의 인용문들의 표현을 빌려볼 때, 선자는 자신을 ‘평생 손가락질을 당할 난잡한 계집’이자, ‘자신을 애지중지하며 기른 부모님을 배신한 자’, ‘아이에게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 엄마’로서 자신을 ‘추잡한 인간’이라 정의한다.

자신은 숲속 흙바닥에서 남자가 제 몸을 갖게 내버려둔 무지렁이 시골 처녀였다. 한수가 탁 트인 바닷가에서 자신을 원했을 때도 제 몸을 마음대로 탐하게 내버려 두었다. 자신이 한수를 사랑하듯이 한수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한수가 저와 혼인하지 않으면 자신은 평생 손가락질을 당할 난잡한 계집이었다. 아이는 성도 없는 사생아가 될 터였다. 자신의 창피한 짓 때문에 어머니의 하숙집도 크게 평판이 떨어질 것이다. 배속에 있는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 같은 진짜 아버지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vol.1, pp.85-86).

“다시 제 옆에 오면 꼭 죽어버릴랍니다, 지가 몸 파는 여자처럼 처신했을지 몰라도…….”

선자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아버지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버지의 아름다운 눈과 갈라진 입술과 구부정하고 느린 걸음걸이가 또렷이 보였다. 아버지는 기나긴 하루 일이 끝나면 마른 옥수수대와 나뭇가지를 깎아서 인형을 만들어주었다. 주머니에 남은 동전이 한 닢이라도 있으면 엿을 사주었다. 이렇게 추잡한 인간이 된 딸을 보지 않아도 되니 돌아가셔서 차라리 다행이었다. 아버지는 선자한테 자신을 소중히 하라고 가르쳤는데 선자는 그러지 못했다. 열심히 일만 하면서 자신을 애지중지하며 기른 어머니와 아버지를 배신했다(vol.1, p.86).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선자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백이삭이었다. 그는 평양 출신의 인물로, 오사카에 있는 형 ‘요셉’의 권유를 따라 오사카로 가는 중이었다. 배를 타기 위해 부산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그는 과거에 형 요셉이 목은 경험이 있는 선자네 하숙집에 머물게 된다. 어려서부터 병약한 이삭은 선자네 하숙집에 머무는 중 결핵이 재발하여 계획보다 오래 머무르게 된다. 늘 연약한 몸 때문에 집 안에만 머무르며 바깥 세상을 동경한 그에게 오사카행은 사실상 목숨을 건 여정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거의 평생 병자 취급을 받아왔지만 누구보다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현실보다는 이상을 좇는 사람이었다. 또한 독실한 개신교 목사였다.

이삭은 젓먹이 때부터 시름시름 앓았고 어린 시절 내내 가슴과 심장, 위장에 심각한 병을 달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별 기대는 없었다.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살아서 그런 날을 맞이했다니 이삭 자신조차 놀랄 지경이었다. 자신의 불가피한 죽음에 대한 온갖 이야기에 도 이삭은 좌절하지 않았다. 이삭은 죽음에 익숙해졌다. 쇠약한 몸 덕에 자신에게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확신이 강해졌다(vol.1, p.102).

병과 함께 죽음을 늘 곁에 둔 이삭은 자신이 죽기 전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이삭이 선자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후로, 자신이 선자가 가진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진다. 이삭은 건강하지

못한 자신 때문에 선자가 젊은 과부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선자와 선자의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vol.1, p.111). 선자는 그런 이삭의 제안에 고마워하며 평생 이삭의 좋은 아내가 될 것을 약속한다. 이삭이 ‘신 목사’에게 선자와의 혼인을 허락받으러 간 자리에서, 신 목사가 선자에게 이삭과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선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엄청 감사하고 있습니다. 백 목사님이 어려운 희생을 해주셔가꼬예. 백 목사님을 섬길라고 아주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일본에서 잘 사시도록 뭐든 할 끼라예.”(vol.1, p.135)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고 착한 목사님한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vol.1, p.136)

이로 볼 때, 선자는 이삭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여전히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들은 혼인하여 오사카로 떠나 요셉과 그의 부인 ‘경희’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간다.

3. 차별과 고통으로 얼룩진 ‘자이니치’로서의 삶

선자는 고향에서 원래 이름인 ‘김선자’와, 총독부의 강요로 신분증명서 상에서는 ‘가네다 준코’라는 이름을 사용했었다. 그런데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일본에 와서는 ‘백선자’가 되었고, 일본어로는 ‘보쿠 선자’라고 불렸다. 또한 일본의 신분증명서에서 선자의 이름은 ‘반도 준코’였다. 조선인이 일본식 성을 택해야 했을 때, 이삭의 아버지는 조선말 ‘반대’와 소리가 비슷한 ‘반도’라는 성을 골랐기 때문이다. 이는 창씨 개명을 조롱한 것이었다(vol.1, p.202). 이렇게 해서 선자는 ‘김선자’, ‘가네다 준코’, ‘백선자’, ‘보쿠 선자’, ‘반도 준코’라는 총 5가지의 이름을 갖게 된다. 이 이름들에는 조선인으로, 일제의 신민으로, 재일조선인으로, 외국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게 되는 선자의 여러 가지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자가 오사카에 도착해 요셉의 집이 있는 ‘이카이노’¹⁰⁾에 도착했을 때 묘사된 풍경은 당시 재일조선인들이 처한 환경을 잘 보여준다.

세 사람은 조선인들이 사는 빈민가인 이카이노에서 내렸다. 요셉의 거주지에 도착해서 보니 역에서부터 전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본 좋은 집들과 상당히 달랐다. 동물들의 악취가 상한 음식이나 변소 냄새보다도 역했다. 선자는 코와 입을 막고 싶었지만 역지로 참았다. 이카이노는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집들이 들어서 있었고, 판잣집들은 하나같이 조잡한 자재로 형편없이 지어져 있었다. 현관 입구 계단을 물청소하거나 창문을 닦아놓은 곳도 드문드문 있었지만, 대부분의 집 외관이 수리도 못 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엉겨 붙은 신문지와 타르지를 창문 안쪽에 붙여 가렸고, 갈라진 틈을 막으려고 나무 썰기를 박아놓았다. 함석지붕은 대체로 녹슬어 구멍이 나 있었다. 집들은 싸구려나 주운 재료로 거주자들이 직접 지은 것처럼 보였다. 오두막이나 천막보다 더 튼튼해 보이지도 않았다. 연기가 임시벽통으로 만든 강철 굴뚝에서 피어올랐다. 봄날 저녁치고는 따뜻했다. 누더기를 반쯤 걸친 아이들이 골목에서 잠든 술 취한 남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10) 돼지 치는 들판이라는 뜻으로 일본 오사카 빈민촌의 옛 지명을 말한다(vol.1, p.162).

슬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요셉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현관 계단에서는 작은 남자아이가 똥을 누고 있었다(vol.1, pp.162-163).

요셉은 “여기는 돼지고기 조선인만 살 수 있는 곳이야.”라고 자조적인 농담을 던지지만, 선자는 자신의 고향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놀란다. 이는 일본인들이 재일조선인들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은 이유가 컸다(vol.1, p.193). 하지만 선자는 이러한 환경에 불평하지 않았다. 냄새가 나도 참는 모습을 보인다. 선자는 미혼모가 될 뻔한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품어 준 이삭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에, 불편함을 티 내고 싶지 않아 한 것으로 보인다. 선자에게는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게 선자는 가난과 차별을 감수하며 이카이노에 적응해 간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고, 몇 해 후 둘째 ‘모자수’가 태어난다.

그러던 중 이삭이 신사참배 문제로 투옥되었다. 갑작스레 집안의 가장이 된 선자는 요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카이노에 있는 노천 시장에서 김치 장사를 시작했다. 고단한 삶이었지만 선자는 아들들을 생각하며 버텨낸다. 그녀가 자녀들의 존재를 기쁨으로 여겼던 것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의 경험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따뜻하고 다정했던 말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도 선자에게 소중한, 현재를 버텨낼 힘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의 삶을 구성하는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선자는 아버지의 따뜻하고 다정한 말을 반짝이는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며 의지했다. 누구도 칭찬을 바라서는 안 되고, 특히 여자는 더 그러했다. 아버지는 어렸을 적 선자를 아주 애지중지하며 길렀다. 선자는 아버지의 기쁨이었다. 선자는 노아도 그렇게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었고, 아들들을 보내준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다해 감사했다. 남편의 형 집에서는 하루도 더 못 살겠다 싶은 날들이 있었다.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감옥에 가서 남편 밥을 건네주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럴 때면 선자는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언성을 높이지 않은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기쁨이라는 것을, 아들들이 선자의 기쁨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었다(vol.1, pp. 284-285).

이삭의 죽음 이후 선자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한수의 도움을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한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전쟁의 폭격을 피해 도시 외곽에 있는 다마구치 농장으로 피신했던 일이나, 한수가 양진을 다마구치 농장으로 모시고 온 일, 큰아들 노아가 와세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필요한 돈을 한수가 대신 내준 일 등이었다. 선자는 마지막까지 노아에게 한수가 그의 친아버지임을 비밀로 하고 싶어했으나,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크게 분노한다. 그를 더욱 좌절시켰던 것은, 그의 아버지 한수가 ‘야쿠자’였다는 사실이었다. 노아는 그 충격으로 가족들에게 자신의 행적을 감추고 다른 지역에서 일본인으로 위장한 채 살아간다. 그러다 극적으로 선자가 노아를 찾아내자 그는 그날로 자살한다.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아들을 잃은 선자는 깊은 슬픔에 빠진다. 선자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선자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강렬”(vol.2, p.150)한 것이었다. 그런 선자는 노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

선자는 노아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고 고생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자신이 물을 마시듯

들이마시던 수치를 참아야 한다고 아들에게 가르쳐야 했을까? 결국 노아는 자신의 출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앞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일일까?(vol.2, p.265)

노아는 규칙을 모두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면 적대적인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였다. 노아의 죽음은 그런 잔인한 이상을 믿게 내버려둔 선자의 잘못일지도 몰랐다(vol.2, p.269).

이처럼 선자가 자신의 삶에서 고생을 겪는 동안 그녀의 마음을 내내 지배했던 것은 자식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이었다.

4. 선자의 순례길

죄책감으로 얼룩진 선자의 고생길을 순례길로 바꿔주는 계기가 있었다. 그것은 먼저 선자의 내면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79년 선자가 예순 세 살이 된 해에, 양진은 위암을 진단받았다. 요코하마에 있는 아들 모자수 집에 머물던 선자는 양진이 있는 오사카로 거처를 옮긴다. 하루는 양진, 경희, 선자가 함께 모여 <이국의 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한 여성 진행자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국땅으로 이민을 간 일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이 끝나자 양진은 “다 고생인 기라. 고생은 여자의 운명이 다.”(vol.2, p.265)라고 소회를 밝힌다. 이 말에 선자는 다음과 같이 의문을 품는다.

선자는 평생 다른 여자들에게 여자는 고생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여자는 어릴 때도 고생하고 아내가 돼서도 고생하고 엄마가 돼서도 고생하다가 고통스럽게 죽었다. 고생이라는 말에 신물이 났다. 고생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vol.2, p.265)

그녀는 또한 양진이 야쿠자라는 ‘나쁜 씨’를 가진 고한수가 선자와 노아의 삶을 망쳐냈다고 비난할 때에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선자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선자는 아들이 나쁜 씨를 물려받았다고 믿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이 화와 열이 너무 많은 핏줄이라고 말했다. 씨, 핏줄, 이런 한심한 생각에 어떻게 맞설 수 있단 말인가?(vol.2, p.269)

위의 두 인용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자가 타인이 하는 이야기들에 의문을 품었다는 점이다. ‘여자의 인생은 고생뿐이다’라는 말과 일본인들이 명명한 ‘나쁜 씨(피)’는 타인이 말한 것일 뿐,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그녀에게 일어난 것이다. 양진은 죽기 직전에 한수가 선자의 삶을 망쳐냈다고 했지만, 선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선자가 고한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죽기 직전에 이 남자가 선자의 삶을 망쳤다고 했지만 정말 그랬을까? 고한수 덕분에 노아가 생겼다. 임신하지 않았다면 이삭과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삭이 없었다면 모자수와 손자 솔로몬도 없었을 터였다. 선자는 더 이상 한수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다.

한수와 그의 만남이 한 때는 수치와 후회, 죄책감으로 느껴졌지만, 선자는 그와의 만남으로 인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었고, 현재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파편화 된 고생의 사건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지며 의미를 창출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선자가 이때 과거 이삭이 알려주었던 성경의 구절을 떠올렸다는 점이다.

성경에서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선자가 이 세상의 악에 대해 물었을 때 이삭이 이 구절을 가르쳐주었다(vol.2, p.227).

선자는 이 성경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자기가 의도치 않게 겪게 된 고생들이 결국에는 많은 생명을 존재하게 했다는 의미를 찾는다. 즉, 선자는 성경 속의 이야기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가능성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노아가 죽은 지 11년이 흘렀을 때, 아들을 잃은 선자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고통이 “파도에 깎여 둥글어지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던 가장자리가 무너지고 부드러워진 것을 느낀다(vol.2, p.362). 그러던 중 그녀는 어느 날 꿈에서 한수를 만난다. 꿈에서 본 한수는 선자가 어렸을 때 본 모습 그대로 활기찼다. 그러나 선자가 꿈에서 집중해서 본 것은 곧 자기 자신이었다.

선자가 그리워하는 것은 한수도, 심지어 이삭도 아니었다. 선자가 꿈에서 다시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젊음과 시작, 소망이었다. 선자는 그렇게 여자가 됐다. 한수와 이삭과 노아가 없었다면 이 땅으로 이어지는 순례의 길도 시작되지 않았으리라. 이 아줌마의 삶에도 평범한 일상 너머에 반짝이는 아름다움과 영광의 순간들이 있었다.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는다(vol.2, pp.362-363).

위의 인용문에서 선자는 자신이 부산 영도에서 일본으로 오게 된 여정을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스스로에게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 ‘순례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선자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수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순례의 길에서 여러 고생들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고생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재하게 했기에 의미 있는 것이라 여긴다. 또한 그녀는 사랑했던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었다는 삶의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함으로써 죄책감으로 물들었던 자신의 삶에 위안과 치유를 얻는다.

이로 볼 때, 선자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자신의 삶에 벌어졌던 고생의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으면서 자아를 통합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녀가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과정은, 그녀의 숨은 내면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 즉 주체성의 회복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더 이상 타인이 자신에 대해 정의 내렸던 이야기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 안에서 선자는 자기 나름의 고유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스스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야기를 통한 자기 이해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수용은 역사로부터 상처받은 선자의 내면을 치유한 하나의 과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IV. 나오며

지금까지 『파친코』라는 작품을 통해 이야기가 역사 속 개인의 정체성과 맺는 관계를 살펴 보고, 그것이 삶에 미치는 치유적인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필자는 서론에서 이 연구가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라는 소설 『파친코』의 첫 문장에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하고자 시작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본론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내리고자 한다.

소설의 주인공 선자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일본의 버블경제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곳곳이 살아남은 인물이다. 그녀는 장애, 여성, 재일조선에 대한 차별 속에서 살아갔으며, 이 과정에서 그녀에게는 죄책감, 수치심 등의 상흔들이 생겼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자신의 기쁨이자 삶의 원동력이었던 아들 노아가 자살하게 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한다. 그 고통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저 “파도에 깎여 둥글어지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던 가장자리가 무뎌지고 부드러워”질 뿐이었다. ‘여자의 일생은 고생뿐이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자라난 선자는 이처럼 역사와 함께 많은 풍파와 고난을 겪으며 고생의 길을 걸어왔다.

역사가 선자를 저버리고 상처를 주었지만, 선자는 그 안에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치유해나갔다. 선자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따듯하고 다정한 이야기는, 훗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녀에게 소중한 보석처럼 현재를 버텨낼 힘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의 삶을 구성하는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이 자신에 대해 정의 내렸던 이야기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주체성을 회복해 나갔다. 즉 타인이 ‘고생길’이라고 정의했던 그녀의 삶을, 스스로가 ‘순례길’로 재해석한 것이다. 그 결과 선자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서 주인공으로 거듭난다. 선자가 고생과 죄책감으로 얼룩진 자신의 삶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통한 ‘관점의 전환’은 매우 중요했다. 그녀에게 고생 자체는 힘든 일이었지만, 그 과정 덕분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의 발견은 그녀가 삶을 살아가는 의미로 이어진다. 이처럼 이야기 안에서 선자는 자기 나름의 고유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스스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다.

종합하면, 이야기를 통한 자기 이해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수용은 역사로부터 상처 받은 선자의 내면을 치유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라는 문장에 대해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본 논문을 통해, ‘이야기’와 ‘정체성’ 그리고 ‘치유’는 서로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가 저버린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주인공 선자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라는 것이 역사적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혹은 현대의 경계인들에게 치유적인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며 마무리한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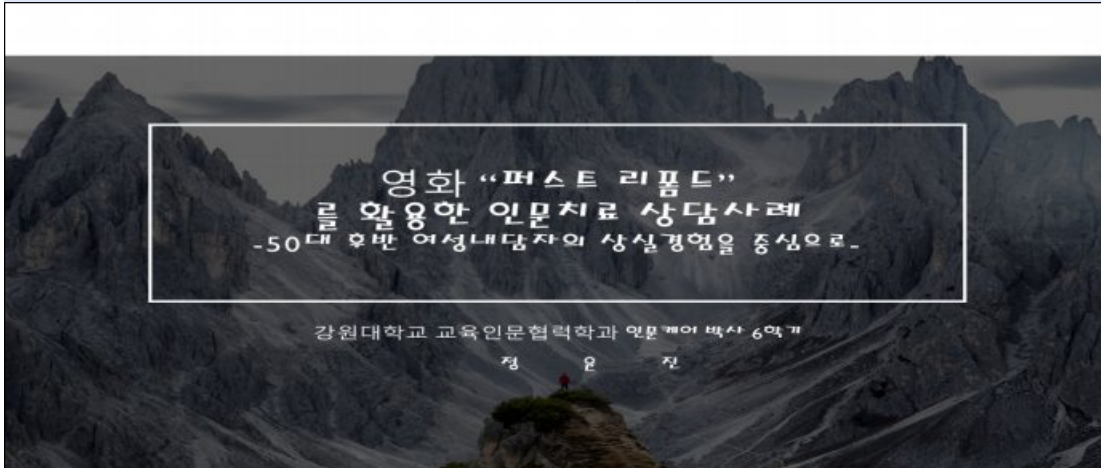
- 강유진(2019). 역사가 우리를 망쳐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 이민진, 이미정 율김(2018), 『파친코』, *문학사상 교양학연구*, 9, 253-261.
- 강유진(2023). '여인의 일생'과 가족사 소설의 현대적 변용 연구 - 「파친코」, 「알로하, 나의 엄마들」, 「밝은 밤」을 중심으로 -, *語文論集*, 93, 269-302.
- 구자경(2016). 한 재혼가정 성인자녀의 내러티브 정체성 탐구. *가족과 가족치료*, 24(2), 207-226.
- 김미영(2022). 민진 리의 『파친코(Pachinko)』에 나타난 이민자 문학적 특징, *한국문화*, 97, 227-263.
- 김영삼(2023). 차별의 장소성과 환대의 불가능성, 편재하는 자이니치 - 이민진의 『파친코』와 Apple TV 드라마 <Pachinko>를 대상으로 -, *현대문학이론연구*, 92, 197-231.
- 김창환(역). *해석의 영혼 폴 리쾨르*, Karl Simms(2009), 앨피.
- 김태희·김종백(2016). 내러티브 정체성을 통해 본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교육심리연구*, 30(1), 1-25.
- 김한식·이경래(역). *시간과 이야기1*, Paul Ricoeur(1999), 문학과 지성사.
- 김한식(역). *시간과 이야기3*, Paul Ricoeur(2004), 문학과 지성사.
- 김현생(2016). 한국·미국·베트남의 베트남전쟁 소설 연구: 부르디외의 '장'과 '아비투스' 이론을 적용하여, *영미어문학*, 121, 33-57.
- 김혜신(역). *디아스포라 기행: 추방당한 자의 시선*, 徐京植(2006), 돌베개.
- 나보령(2022). 모범 소수자를 넘어 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이주민 소수자 서사의 도전과 과제. *人文論叢*, 79(1), 429-461.
- 마승혜·김순영(2022). 부르디외(Bourdieu)의 사회학 관점에서 살펴본 이산문학 혼종성: 이민진(Min Jin Lee)의 Pachinko를 중심으로, *동서 비교문학저널*, 62, 141-167.
- 손영희(2020).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 넘기: 이민진의 『파친코』에 나타난 경계인의 실존양상, *영어영문학*, 25(3), 65-86.
- 신승미(역). *파친코1*, Lee Min Jin(2022), 인플루엔셜.
- 신승미(역). *파친코2*, Lee Min Jin(2022), 인플루엔셜.
- 유강하(2011). 문학의 소비자에서 생산소비자(Prosumer)로 - 생산소비적 중문학 수업을 위한 사례와 제언, *중국어문학논집*, 66, 525-546.
- 양명심, 신인섭(2023). 다문화 문학 『파친코(PACHINKO)』에 재현된 자이니치(在日) 서사와 공동체 윤리, *日本文化學報*, 96, 251-268.
- 양영자(2015). 재독 한인 광산노동자의 생애 이야기 재구성: 내러티브 정체성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9, 281-329.
- 오테영(2021). 경계 위의 존재들 - 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재일조선인의 존재 방식. *현대소설연구*, 82, 377-405.
- 이경재(2021). 이민진의 「파친코」에 대한 젠더지리학적 고찰, *춘원연구학보*, 22, 103-133.
- 이봉희(역). *글쓰기 치료*, James Pennebaker(2007), 학지사.
- 이정은(2014). 생애 이야기의 선택적 구성과 내러티브 정체성 연구 - 재미 교포 1세의 개인적 평가를 중심으로 -, *언어사실과 관점*, 33, 56-86.
- 임진희(2019). 민진 리의 『파친코』에 나타난 재일한인의 장소담론,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8), 271-280.
- 장영우(2022). 재일(在日), 영원한 이방인 - 이민진 『파친코』론 -, *일본학*, 56, 43-74.
- 장희동(2023). 이민진 소설 『파친코』에 나타난 공간적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89, 161-198.
- 전현주(2022). 「파친코 Pachinko」의 '장소성' 서사 연구: -사람·장소·환대의 개념을 중심으로, *人文科學*, 124, 121-151.
- 정성미(2017). 자기 삶 이야기와 자아정체성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문학교실>의 언어 표현 자료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69, 355-387.
한국민족문화대백과(2023), <http://encykorea.aks.ac.kr>
형진의(역).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 徐京植(2012), 반비.
Erikson, Erik(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Y: Norton.

영화 “퍼스트 리포드” 를 활용한 인문치료 상담사례: 50대 후반 여성내담자의 상실경험을 중심으로

정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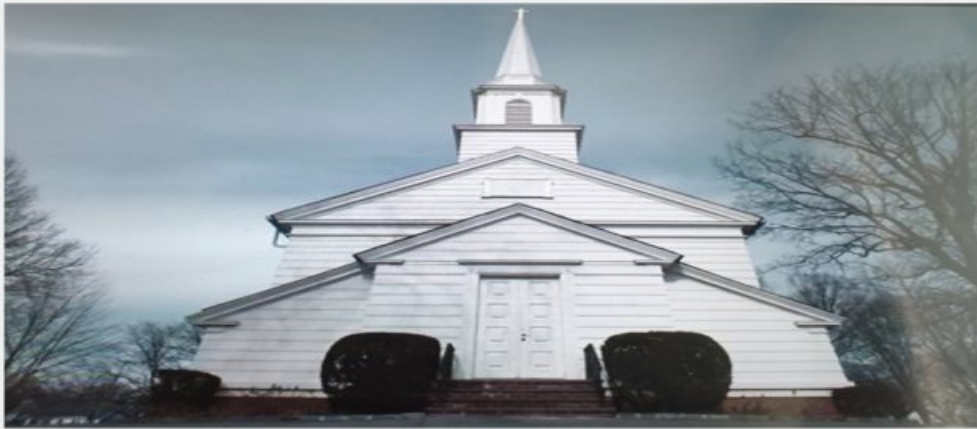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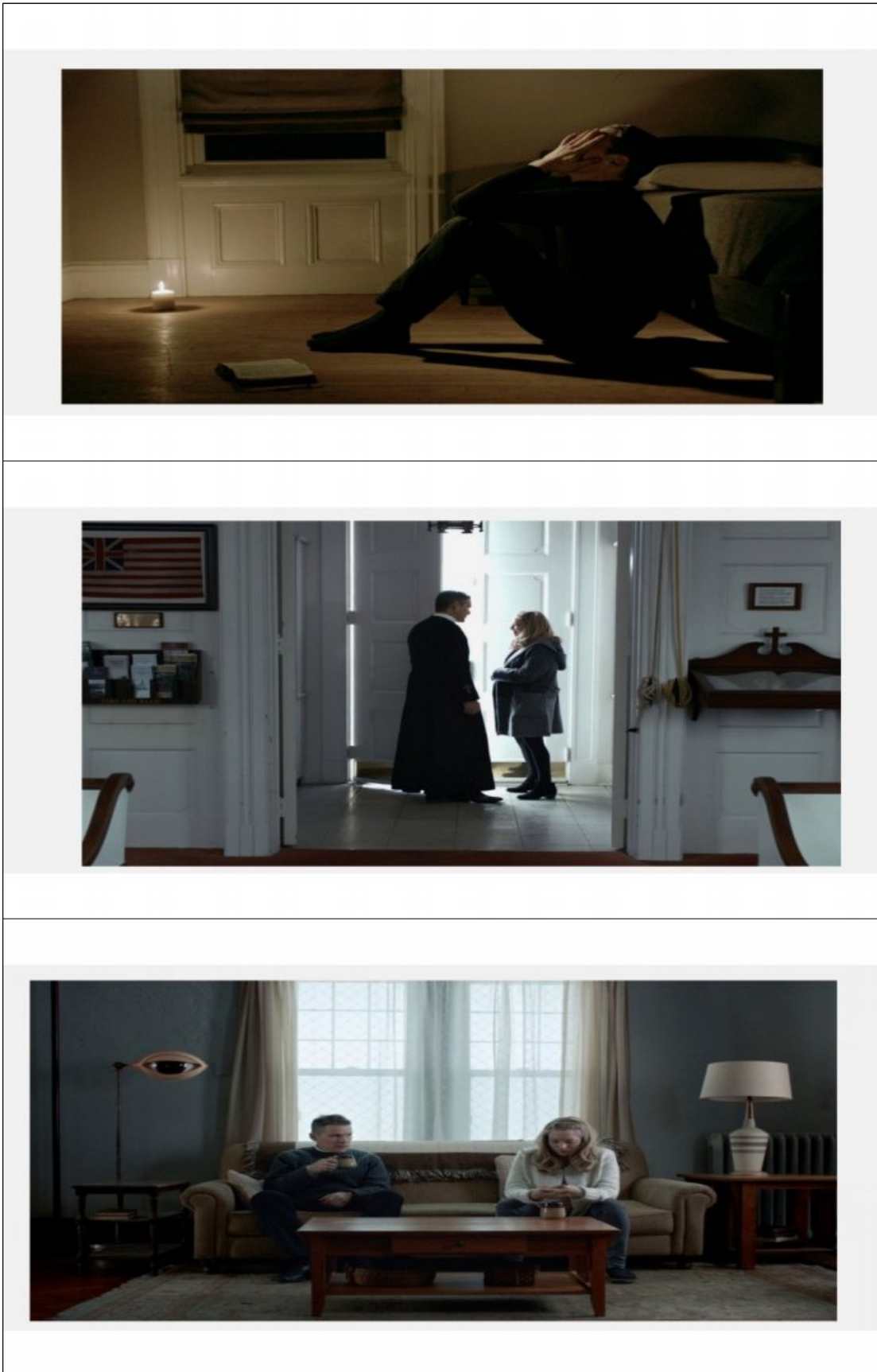


1. 내담자 정보
2. 영화 분석
3. 프로이트의 " 슬픔과 우울증"
4. 인문상담 사례
5. 결론 및 제언

-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인문상담을 시작하게 된 내담자
- 3살 무렵 아버지의 죽음 :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음
- 4살 무렵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외조부모께 위탁
- 12세 무렵 어머니와 계부와의 합가 : 새로 태어난 이부동생과의 사이에서 내담자 남매의 외로움
- 20대 초반 뜻밖의 임신으로 가출, 결혼생활 시작, 부모와의 관계 단절
- 첫 아이의 유산, 시아버지의 죽음, 새아버지의 죽음, 올케의 죽음

- 박완서의 “나목”을 활용한 15회기의 인문상담 완료, 울케의 죽음으로 인한 오해와 상심으로 추가적 상담 필요









• 작품 분석

1. 영화평론가 이동진 : 몸에 대한 비유(병들어 가는 톨러 목사의 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구라는 '몸')
2. 정신분석학적 관점 : 라캉의 상징계와 실재계(상징계의 전영인 톨러 목사의 실재계에 구멍이 뚫려 상징계로 돌아갈 수 없는 부분 언급)- 이철
3. 종교적 관점 : '야곱과 천사의 싸움' (답을 얻을 수 없는 신과의 대화)- 서동수

* 애도의 관점으로 본 영화 <퍼스트 리프트>

1. 프로이트의 ‘슬픔과 우울증’ : 정상적인 슬픔(애도)와 병리 적이며 비정상적인 애도로서 멜랑콜리(우울증)를 구분 → 보통 사람의 경우 그 대상의 사라짐을 슬퍼함과 동시에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나르시시즘으로 그 대상에 투여되 있던 리비도를 철회, 새로운 리비도 대상 발견 슬픔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삶의 과정으로 돌아가는 것.
2. 프로이트는 애도와 멜랑콜리를 구분하면서 애도의 대상, 즉 슬픔은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멜랑콜리(우울증)는 자신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유 자체를 자아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3. 애도(슬픔)는 애착했던 대상의 상실에 따르는 고통과 이에 따르는 병리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한 자아노력의 상황 이지만 멜랑콜리(우울증)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 줄 아는 자애심이 사라지고, 어떤 대상에 대해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며, 망상적인 자기비하와 아울러 본능적인 욕구까지 누르게 되는 상태를 의미
4. 햄릿에 나타나는 슬픔과 우울증 그리고 애도의 행위
 - 햄릿의 우울증, 레어티즈의 슬픔
 - 레어티즈의 오피리어에 대한 애도행위

- 영화 <퍼스트 리프트>를 읽었던 인문상당 사례

회	영 화 내 용	주 고 받은 대화	내담자의 감정표현
1	낮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만 밤에는 우울감을 떨칠 수 없는 돌러 목사 매리 라는 신도의 남편에 대한 상담이라, 마이클과의 상담	책에 비해 즉각적으로 와 닿는다는 영화에 대한 감상평, 돌러목사의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	영화 초기라 상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 인한 내담자의 고단함 토로
2	전도사 매스터와 그애를 거부하는 돌러 마이클의 차고에서 자살목탄 조끼를 발견하고 수거에 가는 돌러, 마이클의 자살을 목격하는 돌러	우울 아이들이 인터넷 미디어로만 소통한다는 부분이 인상적, 매리가 자살목탄 조끼를 발견한 것을 돌러와 상의하는 장면이 흥미로웠고 교회 행사에서 돌러가 연하지 않는 일일 상급 목사가 필요라는 장면이 불편	첫 아이를 유산했어야만 했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 당시 생계가 곤란하여 첫 아이를 포기하면서도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미안함이나 죄스러움도 느끼지 못했던 기억 위상, 현재 큰 아이를 키우면서 그냥 그때 그냥어도 어쩔게해서든 기억났을 거란 후회

- 정신분석 치료에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자신의 미래에 관련되어 자신의 인생사가 주체에 의해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체가 자신의 인생사의 완전한 재구성 과 그 수임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생생한 사건을 되새기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요점은 기억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사를 다시 쓰는 문제입니다.
- → 김중주 “이청준과 라캉”
- 감사합니다.

신화적 상상 속 치유적 의미 고찰- 영화 <날씨의 아이>를 중심으로

양송이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2023 4단계 BK21 교육인문협력학과 국제학술대회

신화적 상상 속 치유적 의미 고찰 - 영화 <날씨의 아이>를 중심으로

소 속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이 름	양송이

1. 들어가는 말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음.

동일본 대지진은 사망자 15,901명, 간접 사망 3,767명, 실종 2,528명의 막대한 인명피해를 남김.

대지진은 현재까지도 일본 사회에 큰 후유증을 남기고 있음.

반복된 자연재해의 폭력이 일으키는 갈등에 대한 공포심과 무력감, 트라우마

▶ 재난 사회를 살아가는 '재난서사'에 대한 의논 심화,
문화계에서 '재난의 극복, 재난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을 그려낸 작품들이 다수 등장함

1. 들어가는 말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 감독 겸 소설가인 신카이 마코토(新津 誠, 1973~)는 '재난서사'를 다룬 3부작의 영화를 제작함.

<너의 이름은(君の名は。), 2016.>, <날씨의 아이(天気の子), 2019.>,
<스즈메의 문단속(すずめの戸締まり), 2022.>

감독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겪은 경험들에서 영감을 얻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는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였음.

1. 들어가는 말



● 3부작 작품의 특징

- 재난서사의 구성이 일본의 고대 신화를 모티프로 삼고 있으며, 신화적 상징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치유가 이루어짐.
- 모든 여자 주인공은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연재해에 맞서 인간의 목소리를 전하는 힘을 가진 '무녀'로서 등장함
- 모든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이 가진 신령한 힘을 일깨우는 조력자로서 등장함
- 본 발표는 <날씨의 아이(天氣の子), 2019.>의 재난서사 속 신화적 상징에서 나타나는 치유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서사에서 도출되는 치유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날씨의 아이> 속 신화적 상징

● 줄거리

- 시골 마을에 살다 도쿄로 가출한 남자 주인공 모리시마 호다카(森嶋 帆高)는 빈곤에 허덕이던 도중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인 아마노 히나(天野 陽菜)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후 호다카는 일자리를 찾다가 성매매 알선 조직에 붙잡힌 히나를 우연히 구출하게 되고, 히나가 소문으로만 들던 맑음 소녀(晴女)라는 것을 알게 된다.

초등학교 동생과 둘이 살며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히나는 호다카의 제안으로 사람들의 의뢰를 받고 맑은 날씨를 전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둘의 사업은 순조롭게 이어지는 듯했으나 가출 소년 호다카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지고, 히나의 동생에게도 보호 조치가 내려지면서 셋은 서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다.

셋은 함께 도망치지만, 히나가 하늘에 바치는 제물이라는 진실이 드러나고 히나는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사라진다.

호다카는 히나를 되찾고자 하늘로 향하고, 히나와 함께 다시 지상으로 돌아온다. 제물이 사라진 이후 도쿄는 3년간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며 점차 수몰되어가지만, 호다카는 자신의 선택으로 바꾼 세상을 개의치 않고 히나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2. <날씨의 아이> 속 신화적 상징 - 이름 상징

● 이름의 상징

- 여주인공의 이름 '아마노 히나(天野 陽菜)'는 한자 순서대로 '하늘', '야생의(자연의)', '별(햇빛)', '채소'를 뜻하는데, 히나가 '맑음 소녀'로서 하늘을 맑게 하고 햇빛을 비추게 하는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음.

- 남주인공의 이름 '모리시마 호다카(森嶋 帆高)'는 '(우거진)숲', '섬(특정한 구역)', '돛(배)', '높을 고'를 뜻함.

호다카는 히나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이름에서 그 숙명이 드러남. (후술)

- 아마노 히나(天野 陽菜) : 햇빛으로 찬 하늘 ↔ 모리시마 호다카(森嶋 帆高) : 나무가 우거진 섬

열려 있는 공간과 닫혀 있는 공간으로 대비되는 두 주인공의 이름

서사 속에서 두 주인공의 만남과 성장은 대극의 합일을 이루어내는 것

2. <날씨의 아이> 속 신화적 상징 - 물/하늘

● 물(비)

- 해당 작품에서 '물(비)'은 "생명의 창조나 재생의 이미지, 퇴행과 미분화 상태로의 회귀라는 죽음의 이미지"가 교차해서 나타나고 있음

- 물은 규칙적인 순환운동을 따르고(비, 조수의 간만) 생물의 성장을 보증해줌.

물의 재난(홍수, 수해)로 인한 '형태'의 파괴와 소모 후에는 항상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역사가 생겨남
홍수 신화는 곧 재생신화이면서 '새로운 인간'이 출현하는 구원적 신화이기도 함(Mircea Eliade, 1996)

2. <날씨의 아이> 속 신화적 상징 - 물/하늘

● 물(비)

- 침례는 "물에서 모든 것이 '용해되고' 모든 '형태'가 없어지며 현상으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존재를 상실하는 것, 홍수는 세계를 주기적으로 원초의 대양으로 용해시켜버리는 것"임.

"물은 모든 형태를 부수고, 모든 역사를 폐기시킴으로써 정화, 재생, 새로운 탄생의 힘을 소유하게 됨.

홍수에 대한 거의 모든 전승들은 인류가 물로 다시 흡수되어버리고 만다는 관념,

따라서 새로운 인류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개시된다고 하는 것과 결부됨." (Mircea Eliade, 1996)

▶ <날씨의 아이>에서 나타나는 물에 의한 침잠은 파괴와 죽음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 새로운 시대의 시작, 순환과 재생을 의미함.

2. <날씨의 아이> 속 신화적 상징 - 물/하늘



● 바다 = 하늘

- 해당 작품에서는 하늘이 바다와 유사한 상징을 지니고 있음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음

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물고기의 형상을 띠

② 호다카와 히나가 '도리이'를 통해 하늘에 올랐을 때 바닷속으로 빠지는 듯한 연출이 이어짐

2. <날씨의 아이> 속 신화적 상징 - 물/하늘



● 바다 = 하늘

- 해당 작품에서는 하늘이 바다와 유사한 상징을 지니고 있음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음

③ 하늘은 거대한 물고기(용/이무기)가 지배하고 있음

④ 하늘의 세계는 피안(죽은 자들의 세계)으로서 여겨지는데, 여러 신화에서 강과 바다가 저승으로서 여겨지는 것과 동일함

2. <날씨의 아이> 속 신화적 상징 - 물/하늘



● 바다 = 하늘

- 작중 신사의 천장에서 등장한 지도에 용으로 형상화된 신적 존재가 나타나는데, 용신은 흔히 동아시아 지역의 민간 신앙에서 수신(水神), 해신(海神)으로서 모셔지며 일본 신화에서는 와타쓰미(綿津見神) 신이 이에 해당함(김여진, 2021)

“수해와 지진이 잦은 동일본 일대의 재해와 관련된 일본 설화에서 용은 뱀·거북·갯파(河童)와 함께 홍수, 수해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를 유발하거나 예고하는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다.”

- “전근대 일본인들에게 ‘용은 물의 신으로 강우나 지우(止雨)를 마음대로 주관하며 국토를 수호하는 존재(이용미, 2021)’ 였음.”

2. <날씨의 아이> 속 신화적 상징 - 물/하늘



● 바다 = 하늘

- “용, 뱀, 조개, 돌고래, 물고기 등은 물의 표상이다. 그들은 조용히 호수에 있거나 강을 헤엄치면서 비와 습기, 홍수를 가져와 세계의 풍요를 지배한다. 용은 구름이나 호수 속에도 산다. 용들은 번개를 지배하며 하늘에서 비를 퍼부어 대지를 비옥하게 하고 여인에게 다산을 보장해준다.” (Mircea Eliade, 1996)

- <날씨의 아이>에서는 전통적으로 물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여겨지는 ‘용’이 하늘을 관장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하늘과 바다가 동일시되어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가짐

2. <날씨의 아이> 속 신화적 상징 - 히나와 호다카의 신화적 역할

●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두 주인공

- 아마노 히나 : 날씨를 치료하는 무녀(맑음 소녀)로서 하늘 위의 저세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존재

- 모리시마 호다카 : 호다카 또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오갈 수 있는 존재임

▶ '울창한 섬(森嶋)': 나무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우주 사다리의 역할

나무는 우주측으로서 땅, 하늘, 지하를 연결하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생명나무로 여겨지곤 함(Mircea Eliade, 1996)

- 나무는 대지가 표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한정한 생명과 실재를 표현하고 있음.

대지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생명의 원천, 모든 형태의 모태이며 살아있는 존재로서 끝없이 번식(재생)함(Mircea Eliade, 1996).

▶ '돛(배)', '높을 고' (帆高) : 호다카는 작중 바다와 동일시되는 하늘을 오갈 수 있는 '배'의 역할을 함.

'배'는 물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이어줌

★ 호다카는 하늘(바다)에 제물로 바쳐진 히나를 구원할 수 있는 역할

2. <날씨의 아이> 속 신화적 상징 - 히나와 호다카의 신화적 역할

● 영웅 서사로서의 두 주인공

- 취약한 위치에 놓인 사회적 약자이며 미성숙한 존재인 두 주인공이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

① 호다카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도쿄에 상경하여, 성 풍속점 일자리에 취직하고자 하였음.

② 히나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업소 조직에 회유될 뻔 함.

▶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모험과 유대를 통해 주어진 운명을 뒤트는 영웅 서사

※ 작중 호다카가 지니고 다니는 책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은 호다카가 나아갈 서사를 상징하고 있음.

-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인 홀든과 호다카는 사회와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의제적 가족을 구성하고 다시 사회와 화해하는 과정을 가진 성장형 인물임(이용미, 2021).

2. <날씨의 아이> 속 신화적 상징 - 폐건물/도리이(鳥居)



● 폐건물(히나가 무녀의 힘을 각성한 장소)

- 폐건물은 종교 의례를 치르는 제단과 같은 장소로,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다리나 계단을 타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옛 제단의 형태와 유사하다.

(지구라트, 피라미드에서 나타나는 신성한 계단)

- 폐건물의 계단을 올라가는 양상은 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음

2. <날씨의 아이> 속 신화적 상징 - 폐건물/도리이(鳥居)



● 도리이(鳥居)

- 도리이는 '새가 머무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새를 죽은 자의 영혼이나 신의 전령으로 여겼으며, 도리이는 성역이나 신의 영역과 인간 세상을 구분하는 경계의 문이기도 함(김여진, 2021).
- 문은 외부 세계와 성스러운 세계가 서로 통하는 출입구이면서, 희망과 기회를 상징하기도 한다(David Fontana, 2011&Jean C. Cooper, 1994).
- 문을 통과하는 것은 통과 의례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도리이'를 지나기 전과 후의 두 주인공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됨.

3.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 해당 작품이 신화적 상상력을 발휘한 다양한 상징들을 통해 현실의 '재난사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치유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화적 인물인 히나와 호다카가 유대와 사랑으로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재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은 '재난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처럼 인력으로 대응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폭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 피할 수 없는 삶의 갈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힘은 인간 내부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힘은 이야기를 읽고 사유하며, 삶을 이해하고자 할 때 얻어진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든 상징은 대극(對極)하고 다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한 상징의 총체를 이해할 때 지유가 나타난다. 상징들은 적극적으로 손쉽게 삶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치유적 의미를 가진다.

(홍수와 같은 수해는 하늘/바다의 신인 용에 의한 것, 수해로 인한 침잠은 완전한 소멸이 아닌 순환과 재생의 한 과정이라는 것, 갈등을 화해하는 방법은 인간 사이의 이해와 협력이라는 점.)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David Fontana, 공민희 옮김, 『상징의 모든 것』,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Jean C. Cooper, 이윤기 옮김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까치, 1994.

Mircea Eliade, 이은봉 옮김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6.

신카이 마코토(新海 誠), 『날씨의 아이』, 민경옥 옮김, 대원씨아이, 2019.

김여진, 「재난서사 속 신화적 상상력과 무녀의 역할 - 신카이 마코토 영화 <너의 이름은.>과 <날씨의 아이>를 중심으로 -」, 『신학과 학문』 제31호, 2021.

이용미, 「『날씨의 아이(天氣の子)』의 내러티브 고찰 -전통과 현대의 중층 구조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118권, 2021.

신카이 마코토(新海 誠), <날씨의 아이>, 코믹스 웨이브, 2019.

|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강 원 대 학 교
인문치료학과
석사과정

우순미

2023. 12. 08, 금

발표에 앞서

본 연구는 삶의 형태가 다양한 노인 대상의 인문학적 돌봄을 시행하면서 고령화 사회 미대책점으로 볼 수 있는 문화복지사각지대의 사회적 고립 노인(잠재적)을 위한 문화권 보장과 일생의 마무리 시점 속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인문학적 돌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함 임.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목 차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II
선행연구 검토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용어정의

❖ **독거노인**

노년에 배우자를 사별했거나 무자녀로써 노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또는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 부족으로 별거상태인 노인,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으나 실제 **홀로 거주 중인 노인**,

자녀, 손자녀와 거주 중이나 자녀, 손자녀 직장, 학교 등의 이유로 **낮 동안 홀로 지내는 노인** 등을 말함

❖ 거주형태, 가구유형, 서비스 대상자와 같은 접근 방식에 따라 **‘독거노인’과 ‘1인 노인 가구’로 혼용**

❖ **사회적고립(Social Isolation)**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거의 **접촉이 없는 것으로 정의(영국, Townsend, The Family Life of Old People, 1957)**

고립의 원인: 가정, 경제, 개인신체정서, 사회적기반

❖ **1인 노인가구의 독립적 노인 vs 고립된 노인** : 자발적 독립에서 발달적, 사회적 고립의 상황(발표자 주장)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023년 고립된 노인대상 돌봄제도의 현실

가. 고령사회(한국, 2017년 65세 이상 14%, 2025년 20% 초령사회)속 노인 층의 양극화

- 독립적 노인과 고립된 노인으로 구분 되기 보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구분
- 경제수준에 따른 선별적 노인복지 속 사각지대(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집중, 기초노령연금 미대상자의 부담)
- 현재 고립된 노인과 잠재적 고립노인을 위한 치료적, 예방적 문화돌봄서비스 미흡
- 고령화로 노인의 빈곤문제 대두와 그 원인

나. 고독사 예방을 넘어 고귀한 죽음을 위한 인문학적 돌봄 부재

- 거동불편 등의 문제로 고립된 노인을 위한 문화권, 독서권 미보장
-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맞이하는 존귀한 죽음 권리(방문진료와 함께 필요한 부분)

다. 신체적 돌봄 기능만이 강조된 안전안부서비스(전화, 방문, 도시락, 장비)확산

- 응급구조 및 고독사 예방(사후조치) 기능만이 강조된 LCT장비 보급설치 확산

고령사회가 문제가 아닌 고령화 사회 미대책이 문제.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2. 고독사 예방을 넘어 존엄한 죽음(삶)을 위한 인문학적 돌봄(심층적 탐색) 부재

가. 사회적 고립상태 노인의 고독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1, 신문에 보도된 고독사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12년-2022년 기사를 중심 2023)

- 이혼 등 가족의 해체/단절 : 48.5%, 사별: 8.8%, 미혼/ 무연고 : 1.5%

나. 건강영역 고립상태 노인의 고독사

- 노년층의 경우 만성질환은 27.9%, 중증질환 19.1%, 정신 질환은 8.8%로 중장년층, 청년층에 비해 건강(만성,중증 질환)문제의 고독사가 높음.

다. 고립된 노인을 위한 문화권, 독서권 미보장

- 문화기본법 제 4조 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생략)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제5조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분	지역구분		
	도시(특별시, 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	총계
노인 대상층	4	104	108
노인 중 '홀로 지내는 노인' 혹은 '독거노인'	4	101	105
장년층	-	6	6
1인 가구	3	56	59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가구' 포함	8	32	40
대상 범위 명시안됨	2	9	11
연계	17	197	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23.07.30)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4. 목적 : 돌봄의 대상에서 인문학적 돌봄을 통한 자기 돌봄을 이룸

- 가. 개인적, 사회적 고립된 1인 노인가구의 찾아가는 인문학적 돌봄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임
- 나. 고립된 1인 노인가구의 수요, 소비의 노인복지 수혜자에서 정서적 자기 돌봄의 생산적 서비스 대상으로 전환
- 다. 고독사 예방의 점검, 확인적인 사후 시스템에서 노인의 존엄한 죽음을 고려한 자기 돌봄 효과의 시스템 구축
- 라. 고립된 1인 노인가구의 찾아가는 방문진료와 함께 인문학적 돌봄으로 가정에서 맞이 하는 호스피스 속 존귀한 삶의 문화 조성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II. 선행연구 검토

- 이민용 외 (2009). 「인문치료의 모색 이야기의 지유적 활용과 스토리텔링 치료」, 『인문치료총서 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 최병욱 외 (2011). 「인문치료의 이론과 원리」, 『인문치료총서 7』,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 배민경(2018).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재순(2022). '독거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효과분석' 인문사회21, 제13권5호.
- 정주원, 조소연(2015). '중장년층의 소득계층별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가족자원경영과 정책(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 이용재(2018). '소득계층별 노인과 비 노인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49.
- 김학령(2023). '1인 가구 노인을 위한 AI 안부 전화 서비스 이용 경험 연구' (2023) 14 *인문사회 21* 제14권 2호
- 안재순(2022). '독거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효과분석' 인문사회21, 제13권5호
- 최종혁 외(2021).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주요 쟁점과 방향성: 현장실무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 박영주(2022).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접한 생활지원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II. 선행연구 검토

- 임혜원 외(2018). IT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고독사 관리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7(3), 71-78.
- 강경선(2013). 「음악과 정신분석」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예술과 인문치료」 강원대학교, 제 29집
- 김창오 외(2020). 「거동불편 대상자를 위한 방문진료의원 모형: 1년 6개월간의 운영사례 보고」, *한국노년학*, 40(6).
- 김태랑 외(2021). '독거노인 고독사 현상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41호1. (2021).
- 이현숙(2021). '근거이론을 통한 독거노인 고독감 대처과정 연구' *한국비전연구* 79.
- 허정무(2018). "국내 노인 독서 프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조은주 외(2010).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노인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
- 김익진(2010). 「소통의 모델에 기초한 인문치료의 이론 모형」 인문과학연구, 25..
- 이민석 외(2017). "진지론 여가 참여 노인의 여가만족과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 김성아 외(2022). 「서울시 1인가구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서울연구원.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II. 선행연구 검토

- 1인 가구·독거·우울감의 노인대상 독서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참여자의 공간이동과 집단으로 진행됨
- 안전안부를 위한 정부정책 중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와 AI안부전화, 대화형장비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보급과 성과에만 집중되어 있음
- 노인층의 다양한 양극화 현상 중 여가시간 활용, 여가문화시설 접근에 대한 연구 또한 정서적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현실
- 고립된 1인 노인가구 고독감 대처는 설문통계의 수치가 아닌 개인별 심층적 탐색으로 확인과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스토리텔링(삶의 서사 말하기, 문학작품 속 동일시와 수용, 이후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하는 생산적, 창의적 활동)치료를 위한 대상별 심층 탐색을 통한 인문치료계획 필요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III. 연구방법

1. 진행절차

- 선행연구 : 고립된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책, 독거노인 예술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대한 대책, 고립된 1인 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인문예술프로그램 실시현황 조사 및 연구로 근거 수립
- 대상자 선정 :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고립 또는 향후 건강악화로 고립될 우려가 있는 잠재적 고립예상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6명(남1, 여5)
- 사전 검사(인터뷰) 후 프로그램 설정 및 프로그램 진행
- 진행간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해 설정된 프로그램 유연적 진행
- 사후 검사(인터뷰)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III. 연구방법

2. 연구대상(남1, 여5)

구분	이 ○ 화	이 ○ 예	현 ○ 자	이 ○ 화	임 ○ 자	이 ○ 나
나이/성별	92세/남	86세/여	83세/여	81세/여	81세/여	77세/여
건강상태	허리통증 지팡이 사용 보행휠전 청각장애(보청기사용)	다리부종	심장병, 허리통증	허리통증/낙상	허리/다리통증	이명현상
일과현황	외출 X TV시청 월2회 병원진료	TV시청 주2회 교회 주1회 병원진료	노인일자리(경로당) 주2회 병원진료 TV시청, 화투문세	주2회 토크쇼장 장사 나물손질, TV시청	노인일자리 TV시청	노인일자리 TV시청
특이사항	20년9월 사별 심약한 상태로 거동에 부담이 큼 경로당 미이용	관계맺음이 어려움 치매 전단계 경로당 미이용	관계맺음이 어려움 약복용지원 경로당 미용	결혼 후 현재까지 나물 장사를 이어옴 경로당 미이용	문맹 경로당 미이용	문맹 경로당 미이용

-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외부활동과 사회관계 맺음에 어려움
- 특별한 여가 활동을 즐기지 못함
- 문화사각지대로 인문문화예술의 결핍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Ⅲ. 연구방법

3. 사전 인터뷰를 통한 자아존중감

▶ 참여자의 자아 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한 3가지 질문 인터뷰

질문	결과	내용
1. 내가 살아 온 삶을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나요?	그렇다 2, 아니다 4	· 어려운 환경 속 남의 집 식모살이 · 불행한 가정 속에서 자녀를 잘 키웠음에도 부끄럽다고 함 · 고생한 삶을 하찮게 생각함
2.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나요?	그렇다 1, 아니다 5	· 다시 태어나 공부를 하고 싶다 · 그렇다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을 거라고 함 · 아픈 몸, 불행한 삶, 나이 들의 불안으로 빨리 죽고 싶다고 함
3.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새로운 흥미를 찾고 싶은가요?	그렇다 2, 아니다 4	· TV가 친구 · 그날이 그날로 특별하지 않다. · 나물 손질로 지루할 틈이 없음. · 여행도 가고, 이것 저것 하고 싶어도 현실이 쉽지 않다.

· 삶에 대한 긍정적 자세 미흡.
·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녀들을 잘 키워내고, 아픈 몸으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함에도 자신의 모습에 자존감이 낮음.
· 나이 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빠른 죽음을 기다리며, TV시청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냄, 기대감 없는 하루.
· 들 아프고, 더 건강할 때 죽고 싶다는 잦은 생각과 말.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Ⅲ. 연구방법

4. 프로그램 설계

* 최지영 프로그램 진행계획

『장미꽃 속으로』(2017)는 인문학을 프로그램

『그림책으로 떠나는 행복마실』

1. 프로그램

가. 개 요

그림책을 선정하여 자신의 살아온 삶을 회상하며 읽어 정서적 공감이 일어나고, 라인과 실로써 감정 및 인문학적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인문학수업활동으로 자신의 삶에 스스로 감동하며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운영기간 : 주 1회 6회 과정(90분)

다. 참여대상 : 거동불편 독거노인 6명

라. 운영장소 : 복지자 주거자

마. 목표 및 세부활동과정

○ 목표 : 거동불편,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 운영방법 : 상호작용 그림책 읽기로 참여자 경험확산, 이야기 나누기, 상호지지의 주제를 따른 인문학을 통한 및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 나눔.

○ 스토리텔링, 독서, 글쓰기, 미술, 음악




차시	주제	활동내용	그림책
1	꽃	남입북의 사용나눔을 감상하며 나의 삶도 꽃과 함께 살아온 꽃이 태어나 꽃과 함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꽃의 생애와 본인의 삶과 같다고 함	나, 꽃으로 태어났어
2	손	경주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다 볼 수 있도록 하며 그 시절 자신의 모습과 여생을 돌아 보며 그 시절을 회상함	고립과 할머니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차시	주제	활동내용	그림책
3	살아 온 삶에 대한 후회	그림책의 주제어 고스란히 남겨진 손을 보며 이 손으로 해낸 모든 일을 회상해 봄. 두 손으로 자녀에게 무엇을 해 주었나, 아낌없이 주는 나의 손에 대한 이야기 나눔 ▶ 활동 : 손으로 쓴 글은 나의 후회기 사실 들춰 달린 나의 손 무미기 고생한 손에 이름 지어주기	손이 들려준 이야기들
4	살아갈 삶 나누는 복	라고 난 복, 지은 복, 나누는 복에 대한 생각나눔 자신이 지은 복, 현재 나누는 복에 대한 자신의 삶 돌아다 보기 ▶ 활동 : 사진 카드를 활용하여 내가 지은 복과 앞으로 나누고 싶은 복에 대한 이야기 만들기	복 다리간 송가
5	살아갈 죽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삶 돌아다 보기 ▶ 활동 : 나는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한 것 차를 만들기	나는 기다립니다.
6	기억될 나	연애하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 들이며 좋은 곳, 안전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려보며 이후 남겨진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지 후손자녀들의 모습 그려다 보기 ▶ 활동 : 남겨진 자들에게 남기는 6면 그림책 만들기	여유 나무

Ⅳ. 연구결과

1. 프로그램 운영 / 회기별 반응

1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 그림책 아름다움에 매료됨 ● 꽃다발을 선물 받은 기분 ● 꽃의 생애와 본인의 삶과 같다고 함 ● 꽃이 피듯 삶도 펼쳐지며 피어 남 ● 펼침 북을 화단처럼 만들어 알아봄 	 <p>(1회차 꽃다발) : 꽃 그림책을 보며 내 삶이 꽃과 같으며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시점 보려고 그리고 이 책이 끝까지 내 삶에 함께 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꽃다발 만들고 화단처럼 꾸민다고 함(참조)</p>
2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름진 손과 얼굴을 보며 본인의 모습 같음 ● 자연스럽게 그림책과 같은 자신의 삶을 말할 ● 태어나 성장, 결혼, 자녀를 키운 이야기를 한동안 함 	 <p>(2회차 할머니) : 할머니의 삶이 어떤 책과 같이 살아 온 삶이 슬프고 힘든데 산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대로 정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마음대로 손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손에 이름을 지어줍니다(참조)</p>
3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에 대한 이름을 지으며 고생한 손, 고마운 손, 고생했지만 예쁜 손의 이야기 ● 본인의 기술, 솜씨,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 	 <p>(3회차 손이 들려준 이야기들) : 그림책을 주며 후손이 아이 손을 붙잡고 할머니 손에게 고맙고 사랑스럽다며 그 손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손에 이름을 지어줍니다(참조)</p>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IV. 연구결과

1. 프로그램 운영 / 회기별 반응(계속)

4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목을 보며 타고난 복이 없어 고생만 했다함 ● 주인공이 나는 복을 보며 자연스럽게 삶을 이야기 함 ● 자녀 잘 키웠으니 지은 복이고, 현재 지식들에게 짐이 안되기 위한 마음도 복을 짓는 것 같다고 함 ● 사진 카드 활용의 자전적 이야기 나눔에 흥미 	 
5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이 이렇게 표현 된 책에 놀라워함 ● 장면을 세심히 관찰함 ● 배우자의 죽음,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봄 ● 빨리 죽어야지가 아닌 편안한 죽음을 기다린다고 함 ●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하루, 준비에 대한 이야기 후 아직은 준비가 될 되었다고 함 	
6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여우의 죽음에 "나를 기억해 주면 고맙지" 와 함께 원망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함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IV. 연구결과

2. 참여소감 종합

- 가. 사전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부끄러운 자신의 삶이 이제는 책과 같다 하며, 책 속 주인공이 참여자라 함.
- 나. 마냥 "죽어야지" 에서 편안한 죽음과 잘 죽기 위해 아직 때가 아니라 함.
- 다. 원망 받지 않기 위해 잘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겠다 함.
- 라. 다양하게 표현 된 생각의 작품이 보여 집안이 미술관(갤러리)같다 함
- 마. 낙상의 두려움, 외출간 부상 우려, 정력저하, 정각장애 등 의사소통 부담이 경감됨
- 바. 배우지 못한 부끄러움에 편 잡기를 부끄러워하고, 생각을 말하기도 서툴렀지만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만이 참여함에 심리적 편안함을 느낌
- 사. 새로운 표현법(미술, 노래, 글쓰기)에 대한 서툰은 그림책을 모방함에 어려움이 경감됨
- 아. 산이 좋고, 나무가 좋으니 책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함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IV. 연구결과

3. 만족감에 대한 인터뷰 및 분석

- 가.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이뤄지는 삶에 대한 회상과 적극적 자신 표현을 하는 것은 귀한 대접을 받는 기분임
- 나. 글을 모르는 자신에게 누군가 책을 읽어주는 것, 펜과 붓을 잡는 것의 설렘의 기분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놀이(여가활동)가 생김에 기대감을 느낌
- 다. 살아 온 삶에 대한 회상과 다양하게 표현 된 삶의 기록을 보며 잘 살아 온 삶이니 마무리도 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자기돌봄의 의미로 노년의 생을 보냄. 이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람
- 라. 참여자 6명 중 2명은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 생애사 작업에 참여함.
- 마. 낮은 자아 존중감과 무료한 하루하루 속에서 인문학적 돌봄 프로그램 참여 후 살아 온 삶의 소중함과 자아 존중감 향상으로 오래도록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자존감과 삶의 만족감이 향상됨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V. 결론 및 제언

1. 1대1 찾아가는 맞춤형 인문학적 돌봄 문화 확산

고립 대상자의 이동, 집단형식의 치유프로그램에서 대상을 고려한 1대1 맞춤형 인문학적 돌봄의 치유 및 예방적 돌봄 문화로 자발적 참여와 삶의 만족도, 자존감 향상

2. 문화사각지대 고립된 1인 노인가구의 문화권, 독서권 보장

문화시절의 접근과 신체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모두를 위한 문화권, 독서권 보장의 보다 실제적이고 촘촘한 찾아가는 문화예술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제공

3. 고립된 환경 속 자기돌봄을 통해 삶에 대한 의미와 긍정적 정서로 행복한 삶 영위

고립된 노인의 대상자별 상황을 고려한 家家戶戶 찾아가는 인문학적 돌봄을 통해 노인 복지서비스 수용, 소비의 수혜대상에서 스스로 정서적 자기돌봄의 생산적, 창조적 삶으로 정리하는 행복한 노후의 삶을 만들어 감

고립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사례 연구



Session 2

기초강연

- 중국 전통의 의학적 사유와 그 신화적 의미
종종선 (대만, 국립대만사범대학교)

기조
강연

중국 전통의 의학적 사유와 그 신화적 의미

종종선

대만, 국립대만사범대학교

현장 배부 예정

Session 3

해외학자 발표

- 카자흐스탄의 인도주의적 과정의 역할:
아스타나 IT대학을 중심으로
아나르 위즈바예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IT대학)
-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박 안토니나 (우크라이나, 우신스키국립사범대학교)

카자흐스탄의 인도주의적 과정의 역할: 아스타나 IT대학을 중심으로

아나르 위즈바예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IT대학



CHEY CHEY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The Role of Humanitarian courses in Kazakhstan: an example from Astana IT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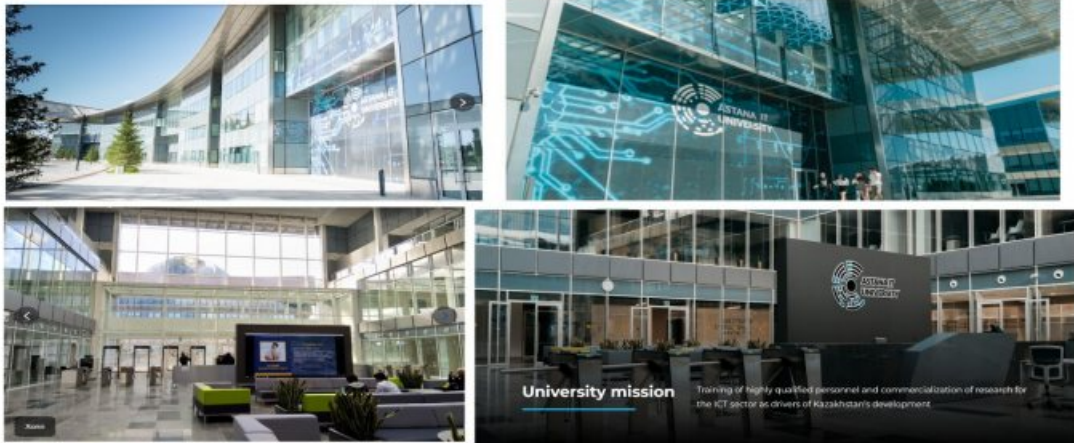
Anar Uyzbayeva
PhD, Associate Professor,
Astana IT University, ISEF fellow of CHEY Institute

General Education courses in Higher Education in Kazakhstan

- Modern History of Kazakhstan, Philosophy, Foreign language (English), Kazakh or Russian Language, ICT, Physical Culture, and Socio-Political Module (Psychology, Political Sciences, Cultural Studies, Sociology)
- Mandatory courses
- in different studying years,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program curriculum
- Syllabuses are based on the model curriculum composed and provided by Ministry of Science and Higher Education (2018)
- Credits: 1-5 for each course

Astana IT University

- Launched: 2019
- Levels: bachelor, master and doctor programs
- Educational programs: SE, BD, MT, ST, IIT, ITM, ITE, DG, CS....
- Studying language: English
- Duration: 3 years, 3 terms



Humanitarian courses in Astana IT University

- Modern History of Kazakhstan, Psychology, Philosophy (3), Political Sciences, Cultural Studies
- Sociology, Foreign language (English/Chinese, German), Kazakh (Russian) language, ICT, physical culture
- The aims of humanitarian disciplines: shaping students' openness of mind, competitiveness, realism and pragmatism, independent critical thinking, assimilating key worldview concepts;
- Application of knowledge acquired during the study of these disciplines in professional activities.

Teaching Methods (Philosophy, Psychology, Cultural Studies)

- Discussion
- Case, game study
- Students' projects
- Group/individual works
- Analysis of Scientific articles, philosophical texts
- Online tech tools (psychological tests, quizzes, games (Kahoot, Jeopardy), Padlet, Miro...)
- Survey among students (comments)

Cultural Studies

- Hofstede's Cultural Dimensions Theory
- Culture shock
- Semiotics of buildings in Astana
- Scientific articles
- SWOT Analysis of official documents and programs in Culture Policy in Kazakhstan
- Student projects

Problems / Challenges

- Ministry of Education: content of the Syllabus based on the model curriculum can be modified by up to 30%
- Students: attitudes, psychological features of young generation, high amount of students
- Teachers: energy, creative thinking, teaching + scientific activity

Conclusion

- Students usually understand culture in its broad sense. I try to focus on the narrow sense of the term, including everyday habits, etiquettes, team culture, interpersonal level of culture, pers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 CQ (cultural quotient)
- The peculiarity of humanitarian disciplines is that the results of their impact, changes in a person's inner world, their thinking (reasoning), cannot be quantitatively measured. A person can only feel these changes. We can observe the influence of humanitarian disciplines on our students through their thoughts, speech, and actions, their behavior.

Scientific projects

- Korean Wave and its impact on the Spiritual World of Youth in Kazakhstan (Chey Institute)
- Assistive Technologies in Inclusive Education: Practice of Application in Kazakhstan Universities (2023-2025)
- Representation of Abay in the Digital World
- Philosophy of Wellbeing and Aging Issues in Kazakhstan

THANK YOU FOR ATTENTION

ANY QUESTIONS?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박 안토니아 우크라이나, 우신스키국립사범대학교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우신스키국립사범대학 박안토니아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1. 들어가기

1

우크라이나 국민의
집단적 트라우마
(collective trauma)
국민의 40-50%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2

한국어 교육에서
정서적 위기
(emotional crisis)에
대한
접근 요청

3

한국 문학작품 읽기
문학 치유적 관점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1. 들어가기

1

연구 대상
우크라이나
한국어
초급 학습자
11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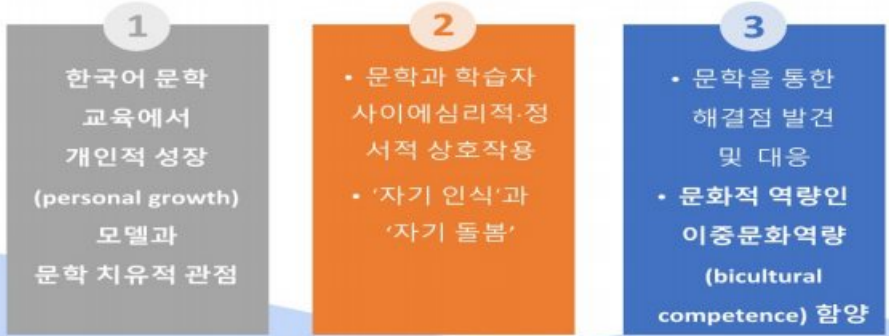
대상 문학 작품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천상병의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

3

1,2차 온라인 수업
그림 및
감상문 수집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2. 우크라이나 한국 문학 교실에서 치유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2. 우크라이나 한국 문학 교실에서 치유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경우

-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서적 고립
-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한 정서적 반응 촉발
- 화자의 상황이나 태도를 학습자 자신과 비교·대조를 통해 지각하지 못했던 정서적 반응
- 문학 작품을 통해 자기 인식의 계기 마련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3. 우크라이나 학습자의 한국 문학 작품 읽기 양상

<p>『엄마야 누나야』 김소월</p> <p>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갈변 살자</p>	<p>『바람에게도 길이 있다』 전상병</p> <p>강하게 때론 약하게 함부로 부는 바람인 줄 알아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바람은 용케 찾아간다. 바람길은 사통팔달이다. 나는 비로소 나의 길을 가는데 바람은 바람길을 간다. 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p>
--	---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3. 우크라이나 학습자의 한국 문학 작품 읽기 양상

학습 활동

- 시를 읽고 시의 제목이나 구절을 보고 떠오르는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 시 영상 감상 후 받은 인상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 시 속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말(글)로 표현하기
- 시에 대한 교사의 추가 설명을 통해 자신의 반응과 의견을 종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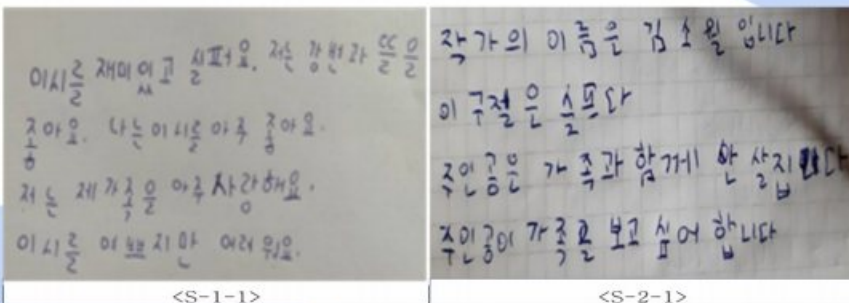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3. 우크라이나 학습자의 한국 문학 작품 읽기 양상



<S-5-1>

<S-6-1>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3. 우크라이나 학습자의 한국 문학 작품 읽기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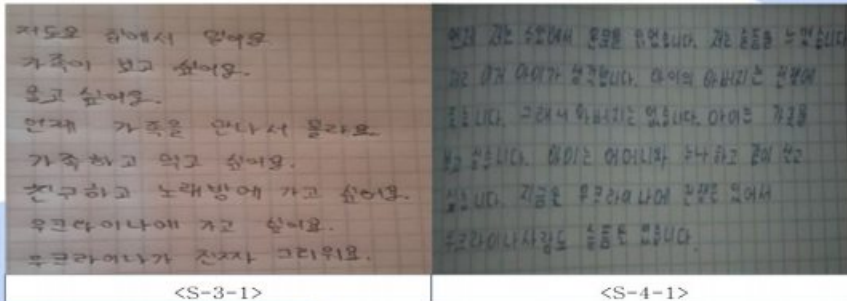


<S-1-1>

<S-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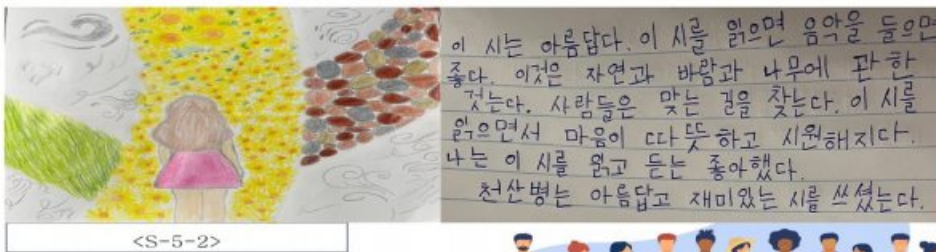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3. 우크라이나 학습자의 한국 문학 작품 읽기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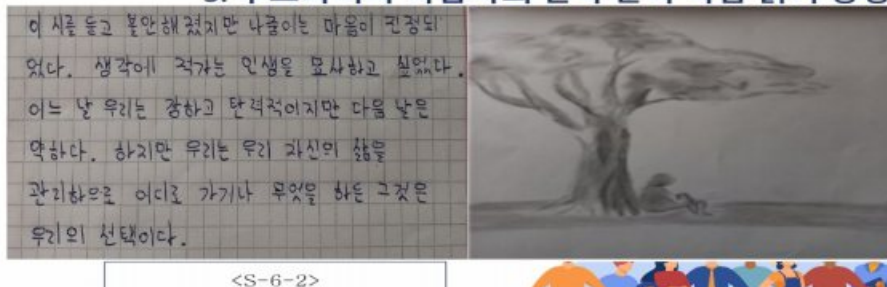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3. 우크라이나 학습자의 한국 문학 작품 읽기 양상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3. 우크라이나 학습자의 한국 문학 작품 읽기 양상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3. 우크라이나 학습자의 한국 문학 작품 읽기 양상

<p>제목: 빨강머리곰 귀이 있다. 작가: 천상병</p> <p>이 시를 읽고 나는 슬픔을 느꼈다. 내 생애 첫가는 우리가 바로 이 바깥에 있는 것을 견디고 싶었던 것 같다. 바깥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너무나 좋고 마음대로 고르게 산다는 것이 그리고 바깥이 너무나 분명 우리는 어딘가에서 선두군이다. 새 생애에는 귀색과 검은색 공룡의와 비교할 수 없다. 바깥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너무나 좋고 마음대로 고르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 우리는 어딘가에서 선두군이다. 귀색과 검은색 공룡의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 꿈에는 이것이 바로 작가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p>	<p>저는 모든 작은 재미있는 시를 들었다. 이 시의 뜻은 아무도 나아가 간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으면 생각한다. 그러서 항상 큰 기쁨을 생각해 준다. 가끔 우리 마치 양인 같은 고집이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신수할 CCH 올라가는 쉽지 않은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생애의 뜻의 생각을 했다. 그 CCH 저는 우리 나라에서 이 시를 나의 생애가 해서 어찌 교생 해도 되고 우리 가족의 간지 사할 것이다. 전쟁 비바리 77나면 주체다. 저는 이 시를 마음에 들었다. 감사합니다.</p>
<p><S-1-1></p>	<p><S-2-1></p>

우크라이나 대학생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한국 문학 활용의 가능성
4. 마무리

감사합니다



Session 4

국내학자 발표

- 상호문화소통을 통한 다문화부부 갈등중재 실행연구
권요셉 (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문학적 돌봄의 필요성 연구:
철원군 양지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한나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

국내
학자
발표

상호문화소통을 통한 다문화부부 갈등중재 실행연구

권요셉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지역재생, 상호문화, 치유

상호문화소통을 통한 다문화부부 갈등중재 실행연구

AN ACTION RESEARCH ON CONFLICT MEDIATION OF MULTI-CULTURAL COUPLES THROUGH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권요셉 [인하대]

국제학술대회
연구발표
인하대

서론

- 갈등중재 이론을 갖고 있는 비폭력대화, 회복적정의, 연극치료, 교류분석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 한 결과,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처하는 이론을 갖고 있지는 못하였음.
- 각 분야의 갈등중재 이론에 상호문화소통 이론을 융합하여 다문화부부의 갈등을 중재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이론적 논의

- 비폭력대화, 회복적정의, 연극치료, 교류분석이 갈등중재할 때의 공통점은 욕구 읽기와 공감을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이 아닌 근본갈등원인을 파악하여 상호적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고, 차이는 각각 대화, 교육, 역할극, 분석을 활용하는 등의 기법의 차이임.
- 상호문화소통은 단일문화를 넘어 둘 이상의 문화가 만나면서 형성된 '사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교환, 장벽제거, 연대성에 대한 개념으로 문화간 고유성과 상호공존을 모두 이루기 위해 가치생산을 하는 소통임.
- 상호문화소통을 중심으로 각 갈등중재 이론들을 융합한 결과, 다문화부부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자문화성찰, 타문화인식, 탈문화성, 판단보류, 정체성협상의 이론이 상담프로그램에 개입될 필요가 있음.

연구방법

실행연구

실행연구는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현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과정이 철저히 현장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이론적 혹은 학문적 기여만으로는 부족하여 현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현장 실무자에 의해 진행되는 '실행=연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행연구는 연구의 주체-객체의 분리를 거부하고 연구자도 연구 참여자도 동일하게 능동적인 참여자의 입장을 취하며, 외부 평가에 의해 반성과 실행의 반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



전문가

비폭력대화 전문가 - 갈등중재 및 비폭력대화 모임 경력 12년
 회복적정의 전문가 - 갈등전환 경력 17년
 교류분석 전문가 - 교류분석 수퍼바이저 경력 12년
 연극치료 전문가 - 연극치료 수퍼바이저 경력 15년
 상호문화소통 전문가 - 심리상담 경력 9년, 상호문화소통 연구자

실행전 프로그램

1, 2회기	3,4회기	5,6회기	7,8회기	9,10회기
라포형성 사전중재 (개인면접) 자기분석	자문화성찰 욕구찾기 자기인식 자기표현	대인인식 타문화인식 타자공감	이중자아 역할변경 정체성협상 타자공감	중재합의 상호이해 미적거리

1차 연구참여자

남편 - 한국인, 사업가
 아내 - 카자흐스탄, 무직
 갈등 - 남편이 용돈으로 상호 만족한만한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지만, 가정 살림을 맡기지 않음. 가정 살림을 꾸리는 것은 남편이 다 함. 아내는 역할이 없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놀기만 함. 가정주부도 아니라고 함. 아직 자녀는 없고, 아내가 공허함을 느끼고 이혼 이야기를 꺼냄.

1차 실행 결과

실행 전 자기 인식
 남편 - 돈을 벌어서주고 경제적인 것들을 책임져줄뿐 아니라 집안일도 시키지 않는 좋은 남편. 필라테스 강사는 안됨.
 아내 - 일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는 아무 역할 없는 사람. 자아가 없어지는 것 같음
 -> 실행 후 인식 변화
 남편 - 남편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인식 발견. 아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라테스 강사 포함
 아내 - 필라테스 강사도 하고 살림도 잘 할 자신 있음.

순양전, 선녀와나뭇꾼, 로미오와줄리엣 비교

코즈코르페시



1



2

두 친구가 아이를 낳으면 결혼시키자고 약속하고, 코즈코르페시와 바얀술루가 태어남. 코즈의 아버지 죽음,바얀은 자라서 코즈와 결혼하려고 하나 아버지가 반대하고, 아버지가 있는 코다르에게 시집보내려 함.

코다르가 바얀의 마음을 잡기 위해 코즈를 죽이자, 바얀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달라고 코다르에게 부탁하고, 코다르가 바얀의 머리를 맞출살아 우물에 내려가자 바얀이 머리를 잘라서 코다르를 죽이고 자기도 죽음.

전문가 FGI

1. 자기문화성찰과 자기인식을 먼저 하고 나중에 타문화인식 및 타자인식을 하면 오히려 자기와 타자를 구분하는 느낌이 남. 매 회기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분석->중재'의 과정이 나뉘지기보다 회기 안에서 분석과 중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음.
3. 미적거리를 확보하는 작업과 중재합의가 같은 회기에 있기보다 미적거리를 확보한 후에 중재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1차 실행 프로그램 - 전문가 의견 반영

반영 전		반영 후	
01	자기 인식 후 타자인식	01	자기 인식과 타자인식 함께 진행
02	분석과 중재를 구분함	02	분석과 중재를 함께 진행
03	자기욕구찾기 초기에	03	자기욕구찾기 지속적으로
04	타자공감은 후반에	04	타자공감 지속적으로
05	미적거리와 중재합의 같이	05	미적거리 후 중재합의로

실행 프로그램

○○○				
1,2회기	3,4회기	5,6회기	7,8회기	9,10회기
라포형성 사전중재 (개인면접) 자기분석	자기문화성찰 타문화인식 -> 상호문화역동 (역할극)	자기인식 타자인식 -> 상호이해 (역할극)	정체성협상 자기표현훈련 타자욕구찾기 타자공감훈련 (역할극) 미적거리	중재합의

2차 연구참여자

남편 - 60대 은퇴자, 연금 나옴.

아내 - 40대 필리핀 가정주부, 필리핀에서 함께 온 딸 있음.

갈등 - 남편이 팔에 장애가 있고, 집안 일을 도울 수 없음. 아내가 대체적인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 아내는 빠듯한 경제적 불안정, 커가는 딸아이의 학비 등의 문제로 나가서 일을 하고싶고, 남편은 알바 수준 이외의 일을 막고 있는 상황. 아직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음. 아내는 별거를 강행할 정도로 단호함.

현재 3회기 진행한 상황임.
10회기까지 진행하면 자기성찰 및 연구참여
여자 평가를 통한 최종 프로그램 도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문학적 돌봄의 필요성 연구: 철원군 양지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한나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

2023 4단계 BK21 교육인문협력학과 국제학술대회

지역재생, 상호문화, 치유
地域再生, 相互文化, 治癒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문학적 돌봄의 필요성 연구: 철원군 양지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한나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 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

1-1. 연구의 목적

2

● 연구의 내용

- ① 공동체, 지역공동체란 무엇인가?
- ②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 ③ 양지마을 공동체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은 어떻게 논의 될 수 있는가?

● 연구의 흐름



철원군 근남면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나타난 공동체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지역재생을 위한 인문학적 돌봄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적용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1-2. 지역, 공동체, 지역공동체, 공동체 문화 행동

3

- ① 지역이라는 공간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기반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나타난 행위주체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Rusch, Gernschatl, Laczki, & Sander, 2003; Theodor Gernschatl, Zur Einführung, <공동체이론> 제노원 판상권(여), 서울:이문, p.12
- ② 공동체라는 개념은 사회 자체의 변화하는 의미론의 일부이자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는 정치적인 개념이며, 특히 특정한 목적이나 이해를 관철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하나의 투쟁개념까지도 형성한다.
Rusch, Gernschatl, Laczki, & Sander, 2003; Theodor Gernschatl, Zur Einführung, <공동체이론> 제노원 판상권(여), 서울:이문, p.12
- ③ 공동체는 그 어떤 요소를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자 그 이상의 다른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과학철학자 갈리(W.B. Gallie)가 명명한 '본질적으로 경합의 대상이 되는 개념'에 해당한다.
황익주(2016), 왜 한국 도시에서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목하는가? p.32-34
- ④ 지역공동체는 공동체의 부분집합으로 구성원들이 동일한 지역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공통분모로 하여 형성되는 공동체, 인류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 이자,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치, 경제, 종교, 여가, 교육, 예술, 삶의 모든 측면을 공유하며, 지역공동체는 공동체의 원형으로 인간의 의식에 자리매김 된다.
황익주(2016), 왜 한국 도시에서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목하는가? p.34-35
- ⑤ 공동체 문화는 민족과의 연속선상에서, 연속되거나 격절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마주침 속에서, 행동하는 필요의 주체들에 의해 다시 한번 여러 번에 걸쳐 절합되어 존재하게 되는 구성적 실천 양식이다. 공동체 문화 행동은 '다른 삶의 차원들의 생산, 즉 행위하고 관계 맺는, 가치화하고 판단하는, 살림살이를 공동생산하는 다른 양식들의 생산'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영애 외(2020), 구상과 명백들 p.401, p.405

1-3. 지역공동체의 핵심적 구성요소

4

1	지역주민 간의 사회적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친밀한 인간관계, 주민교류실태 한 개인이 보유한 전체 네트워크 속에 다른 주민과의 친분관계가 차지하는 비중 공식적·비공식적 결사체의 조직구성, 활동상황 (마을회, 주민협의체, 부녀회, 노인회, 의용소방대 등)
2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수준에서 작동하는 복지 체계의 실태 지역단위의 '종합사회복지관' 존재여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장애인, 빈곤층, 여성, 아동, 노인,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돌봄
3	지역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성원들이 느끼는 소속감, 공동체의 의식적 측면 소속감에 대해 행위자들이 '자아정체성'을 표현함에 있어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얼마나 중시하여 말하는가? 지역정체성이 집합적으로 나타난 행사, 축제, 이벤트가 있는가?
4	지역주민의 주체적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 형성과 유지를 위한 공동체 다른 인간관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살핌, 희생과 노력, 실천하는 주체의 존재 여부 지역사회를 지역공동체로 승화시키기 위한 주체적 실천, '마을만들기', '공동체' 운동 현황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 각종의 실천, 정책 및 시민 운동적 실천 등
5	지역사회 공간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내 공간의 디자인적 질서는 지역에서 지역공동체 형성의 물적 토대 및 배경 공동장(커먼즈)에서의 공동체적 활동의 재생산 적대가 아닌 원대, 경쟁이 아닌 연대, 다름이 아닌 우애, 독점이 아닌 분배 등 적대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장

정익우(2016), 왜 한국 도시에서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목하는가? p.20-24 이영배 외(2020), 구상과 영역을 p.416-417.

2-1. 철원군 근남면 양지마을의 사회문화적 변화_근남면 육단리의 위치, 행정구역 변화

5

● 근남면은 (옛)김화군 서남쪽에 있었고, 철원군의 중동부에 위치한 면으로 DMZ에 접한 변방지역으로 거주지역이 부족했다고 나타난다. 1945년 광복 후 북한에 속했다가 1953년 휴전협정 체결로 휴전선 전 지역이 수복, 1961년 철원군에 편입되었음.

‘광어도’에 나타난 김화현(1800)



출처: 철원군(2022), (옛)김화군 방도지 F p.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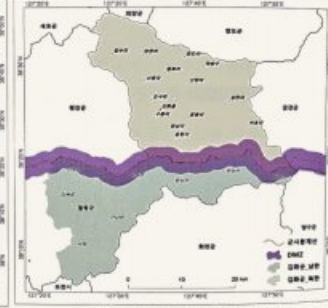
남북 분단 이후의 김화군, 그리고 근남면

1953년 휴전 시, 남한에는 서면, 근남면의 전체지역과 김화읍의 대부분 지역과 근북면, 근동면,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 등 5개면의 일부 편입됨. 1963년 남한으로 수복되었던 김화군의 전 지역이 철원군에 편입되면서 현재의 행정구역 완성

김화군(1945년)



김화군(2000년)



출처: 철원군(2022), (옛)김화군 방도지 F p.230

2-2. 철원군 근남면 양지마을의 사회문화적 변화_점경지역, 민간인 통제선, 민북마을

6

● 1982년 개정된 군사시설보호법(1972.12.26.제정)에 의거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세분화됨,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는 2008년 9월 22일 군사시설보호법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되면서, 군사분계선 이남 10km의 범위로 축소되어 적용.

민북마을 분포도



출처: 이태희(2013),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2013)

근남면에는 3개의 민북마을 존재

철원군은 6개 읍면에 자립안정촌(6), 재건촌(7), 통일촌(1)로 14개의 마을 존재, 근남면은 1960년 4월 1일 마현리(자립안정촌), 1968년 8월 30일 마현2리(재건촌), 1971년 4월 1일 사곡2리(자립안정촌)이 입주하여 3개의 민북마을 형성. 1989년 6월 1일 사곡2리 민통선 해제, 사곡2리와 함께 옥도리(당시 민간인 마을)가 주자제가 민통선에서 해제 됨으로써, 수피령을 통하여 화천군 상서면으로의 민간인 통행이 가능.

2-3. 철원군 근남면 양지마을의 사회문화적 변화_접경지역, 민간인 통제선, 민북마을

㉠ 마현 1리 (자립안정촌)

마현 1리는 철원군에서 두번째로 민통선 북방지역에 입주한 마을로 1959년 9월 태풍 사라의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의 66가구 수제민 364명을 1960년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이주시켜 형성한 마을



"사라호 태풍(1959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태풍 났을때 울진에 피해가 있어. 거기 피해 입은 한 동네 사람들을 이쪽 전방으로 이주시킨거야. 그사람들 한테 땅을 얼마만큼씩 떼어주고 개간해 먹고 살라 한거지."

㉡ 마현 2리 (재건촌)

마현 2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간첩대비사업의 일환으로 전략촌 조성, 1968년 8월 30일 35세 미만의 4인 가족을 형성한 철원 출신 예비군과 민간인 통제선 이남에서 출입 영농 중인 농가 50가구가 입주하여 형성한 마을



"또 1968년에 1.21 사태라고, 북한에서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있었잖아. 김신조라고, 지금 귀순해서 복사되신 분, 그때 예비군 생기고 할 때, 철원에는 전방에 통일촌이 많이 생겼어. 여기가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니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마을을 조성한거지."

(육단2리 박재서 편) 철원군·강원대 교육인문학연구소(2023), 내 생의 아름다운 이야기, PP.124-125.

㉢ 사곡 2리 (자립안정촌)

사곡 2리는 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으로, 관내에서도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속함. 1970년 말에서 1971년 초 외부로부터 55가구가 입주, 국가의 새마을정책 시기와 맞물려 국가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이주 마을, 사곡1리의 자연부락과 이주민에 의해 구성된 마을



철원군(2022), (옛)김화군 향토지 7 p.310-312, (옛)김화군 향토지 4 P.423-424.

2-4. 철원군 근남면 양지마을의 사회문화적 변화_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민의 삶

● 근남면의 인구는 1944년 6,892명에서 1955년 3,862명으로 급감, 6.25전쟁, 철원군 일부지역의 북의 편입으로 급감, 1960년대 인구유입, 1970년대 민북마을을 형성으로 피난민이 이주하면서 인구가 증가하다가, 2000년대 초 군 위수지역 해제로 공동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인구 급감.



Point 01

전후 피난민 이주민거주

"우리 아버님 고향은 지금은 이제 가까이 북한방이지, 오성산이라고 있어, 그 밑에 최 일 이 라는 동네 가 있었는데... (중략)... 우리는 고향을 못가서, 못하고 여기서 머물게 된거지, 이 동네에서."

(육단2리 박재서 편)

Point 02

주민 수제민, 예비군, 군인가주

"'96년도에 철원에 수해가 크게 났었잖아요. 그때 우리 집이 개울 뚝이라 물에 떠내려가 죽을 뻔 했지, 무어하면 다 떠내려갈 뻔 했어... (중략)... 하여튼 여지껏 난 수해 중에 그 때가 피해가 제일 컸다고."

(마현리 최광순 편)

Point 03

상인, 군인, 공무원, 외부방문객

"부대 만남의 날이라고 들어보셨나? 만남의 날, 부모님을 주말이면 군인가족을 만나다 하던, 고기 주물럭 만들었다 하고, 삼겹살 팔고 맥 짜장도 하고 그렇게 뛰었어..."

(육단2리 김정희 편)

Point 02

상인, 지역주민거주

"육단 2리는 위수지역이 해제되면서 면회객들이 와서리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 다들 유골, 술집요 곳이나 되었는데 지금은 분당고... (중략)... 한방 베어서 마치 시간이 정지된 마을 같다"

(육단3리 출신 최만석 편)

철원군·강원대 교육인문학연구소(2023), 내 생의 아름다운 이야기, PP.124-125, 철원군(2022), (옛)김화군 향토지 4, 근남면: 김화군의 삶과 모습 일부 발췌

2-5. 철원군 근남면 양지마을의 사회문화적 변화_양지마을 변화와 지역공동체 속성

이주와 경계 넘기의 반복, 연대와 협력을 통한 척박한 삶의 환경 극복

Point 01

피난민이 모여 형성된 지역

> 1955년 수복 이후/ 육단리는 6.25 전쟁 전 사곡리와 침곡리 사이에 있는 조그만 길목 마을에 불과하였을, 수복 이후 원방으로 못 들어가게 된 피난민이 이주하여 커진 마을

Point 02

군부대 주둔 배후 상권지역

> 1970년대 15사단 군부대 주둔 배후 상권지역/ 위수지역 해제 전 육단 2리는 상권 중심지로 마을 내 상가만 30여개에 달하였을, 근남초, 근남면사무소, 근남우체국, 근남연보건의소, 농촌지도소, 경찰청 관사 등 지역상권 및 행정 중심지

Point 03

상권쇠퇴와 시설하우스 농업

> 위수지역 해제 후 정지된 마을/ 왜수리보다 작은 상권으로 군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당구장, 여관 등 시설이 부족하여 자연히 상권이 쇠퇴, 동시에 시설하우스 농업보급으로 파프리카, 토마토 농가가 증가, 육단2리는 전형적 농촌마을의 모습으로 변모

- > 육단리는 외부에서 유입된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마을로 외부인과의 연대, 협력, 나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 이는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에서 '농업인력지원공간 조성'을 통한 공간과 공동체에 대한 재구성, 즉, 농촌 외국인 노동자와 더불어 사는 마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타 지역(전라도, 경상도)보다는 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판단된다.

3-1.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농업인력지원공간'을 둘러싸고 나타난 공동체의 분열

10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 사례분석 개요

- 근남면 지역은 시설하우스 농가를 집중 육성하여, 파프리카, 토마토 등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농업 대체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마을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정주인구를 늘리고 고령화 되어가는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막고자 함.
- 공동체의 변화 분석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1기(2021.1-2023.2)와 2기(2023.3-현재)로 구분하여 분석함.

도시재생사업 1기 (2021.1-2023.2)	위기 칩경지역의 생존모델, 국경없는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 2기 (2023.3-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제 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여를 둘러싼 마을 내 분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발굴 및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된 추진 리더 그룹의 교체와 추진 동력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사업 추진 및 자생적 운영조직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적 운영조직의 해체, 기존 주민의 자발적 타자화로 소통의 부재, 새로운 조직의 교육문제 발생

3-2.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농업인력지원공간'을 둘러싸고 나타난 공동체의 분열

11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 2기 (2023년 3월-현재) 사례분석

①-1 사업의 참여를 둘러싼 사업추진 리더그룹의 교체와 추진동력의 상실

발생배경	양지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추진 코인벨레방 시설운영 교육 실시 마을활동가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초기, 벨레방 시설이 설립되고 운영을 시작 하면서, 사업에 대한 관심 증폭, 사업운영의 수익과 배분에 대한 관심 집중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표출	사업초기 도시재생사업에 반대했던 주민의 등장 마을 경로당, 지역주민의 불신 마을회 이장, 주민협의체 대표 연임 반대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초기 지역주체 발굴과정에서 구성원이 되길 거부한 일부 숙박업소 관계자 • 이주민이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대 집단 • 사업에 관심은 있으나 참여는 하지 않는 소극적 집단으로 세분화 되었음
리더그룹의 교체	양지마을 주민협의체 대표 및 임원진 교체 양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 해체 강원도 최초의 농업인력지원공간 시설위탁광고	<p>↓ 촉발 : 양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 신규조합원 모집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사업의 리더 조직과 이에 맞서는 신규 반대 집단 간의 충돌은 육단2리 마을회 이장 교체, 주민협의체 대표 교체로 나타났고, 이전 조직은 반대주민에게 인신공격을 당하면서 결국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해체하기에 이룸

3-3.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농업인력지원공간'을 둘러싸고 나타난 공동체의 분열

12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 2기 (2023년 3월-현재) 사례분석

①-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본격 운영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동체 통합을 위한 주민의 문화복지프로그램 요구 다양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수행 지역주민, 전문가 활용 프로그램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문화적 접근성의 증대 요구 • 어린이, 지역 청년, 어르신,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 권외 주민, 취미소양강사, 작은도서관사서, 강원대학과 강사등 외부전문가 유입 															
공동체 재성을 위해 하나되는 이웃을 주제로 프로그램 운영	<table border="1"> <thead> <tr> <th>연차별 문화예술 프로그램</th> <th>운영 내용</th> <th>시사업</th> <th>운영현황</th> </tr> </thead> <tbody> <tr> <td> 프로그램 운영 1년차 (2021) 작은도서관 방문당 양지마을 수호대 리모델링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마에서 기획연설회 3회기 운영 • 책놀이 보드게임 • 핸드메이드 토핑공예 교실 • 어르신 캘리그라피 1회기 • 양지마을 이주민 영회제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어르신, 주민, 외국인근로자를 총 60여명 • 사업초기 공동체 활동 공간 마련 • 가장 필요한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시 새로운 참여자들의 등장 • 작은 프로그램에도 높은 만족도 보임 • 이주민 단체 합법, 이주민의 높은 만족도 </td> <td></td> </tr> <tr> <td> 프로그램 운영 2년차 (2022) 어울림 공회, 어르신 공동체, 공유주방 청년창업정보 '이웃사랑'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메이드 토핑 공예교실 11회기 운영 • 어린이 상상놀이터 2회기 운영 • 1인 1작기 배움 교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 어린이 인문학 프로그램 • 도시재생대학 • 생활 한바퀴 투어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어린이, 주민, 지역주민, 어르신, 외국인근로자를 총 60여명 참여 • 공동체 프로그램 세분화와 지역 강사 발굴 기회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 확대 • 어린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면서 교육적 접근 문화적 활동에 대한 높은 만족도 </td> <td></td> </tr> <tr> <td> 프로그램 운영 3년차 (2023-현재) 어울림 공회, 육단교회 공유주방, 근남초등학교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메이드 토핑 공예교실 • 어린이 상상놀이터 • 1학기 배움 교실 • 육단리 토마토 친구연구회 채종체험 • 어린이 인문학 프로그램 • 어르신 생애주술사 • 생활 한바퀴 투어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어린이, 주민, 지역주민, 어르신, 외국인근로자를 총 60여명 참여 • 문화복지사업에 근남초와 공유주방, 초성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소 적용 • 공유주방을 활용한 프로그램 활성화 • 한식, 토마토를 토 마늘 활용 수업 •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문학이수형 </td> <td></td> </tr> </tbody> </table>	연차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내용	시사업	운영현황	프로그램 운영 1년차 (2021) 작은도서관 방문당 양지마을 수호대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마에서 기획연설회 3회기 운영 • 책놀이 보드게임 • 핸드메이드 토핑공예 교실 • 어르신 캘리그라피 1회기 • 양지마을 이주민 영회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어르신, 주민, 외국인근로자를 총 60여명 • 사업초기 공동체 활동 공간 마련 • 가장 필요한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시 새로운 참여자들의 등장 • 작은 프로그램에도 높은 만족도 보임 • 이주민 단체 합법, 이주민의 높은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2년차 (2022) 어울림 공회, 어르신 공동체, 공유주방 청년창업정보 '이웃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메이드 토핑 공예교실 11회기 운영 • 어린이 상상놀이터 2회기 운영 • 1인 1작기 배움 교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 어린이 인문학 프로그램 • 도시재생대학 • 생활 한바퀴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어린이, 주민, 지역주민, 어르신, 외국인근로자를 총 60여명 참여 • 공동체 프로그램 세분화와 지역 강사 발굴 기회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 확대 • 어린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면서 교육적 접근 문화적 활동에 대한 높은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3년차 (2023-현재) 어울림 공회, 육단교회 공유주방, 근남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메이드 토핑 공예교실 • 어린이 상상놀이터 • 1학기 배움 교실 • 육단리 토마토 친구연구회 채종체험 • 어린이 인문학 프로그램 • 어르신 생애주술사 • 생활 한바퀴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어린이, 주민, 지역주민, 어르신, 외국인근로자를 총 60여명 참여 • 문화복지사업에 근남초와 공유주방, 초성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소 적용 • 공유주방을 활용한 프로그램 활성화 • 한식, 토마토를 토 마늘 활용 수업 •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문학이수형 	
연차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내용	시사업	운영현황														
프로그램 운영 1년차 (2021) 작은도서관 방문당 양지마을 수호대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마에서 기획연설회 3회기 운영 • 책놀이 보드게임 • 핸드메이드 토핑공예 교실 • 어르신 캘리그라피 1회기 • 양지마을 이주민 영회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어르신, 주민, 외국인근로자를 총 60여명 • 사업초기 공동체 활동 공간 마련 • 가장 필요한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시 새로운 참여자들의 등장 • 작은 프로그램에도 높은 만족도 보임 • 이주민 단체 합법, 이주민의 높은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2년차 (2022) 어울림 공회, 어르신 공동체, 공유주방 청년창업정보 '이웃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메이드 토핑 공예교실 11회기 운영 • 어린이 상상놀이터 2회기 운영 • 1인 1작기 배움 교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 어린이 인문학 프로그램 • 도시재생대학 • 생활 한바퀴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어린이, 주민, 지역주민, 어르신, 외국인근로자를 총 60여명 참여 • 공동체 프로그램 세분화와 지역 강사 발굴 기회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 확대 • 어린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면서 교육적 접근 문화적 활동에 대한 높은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3년차 (2023-현재) 어울림 공회, 육단교회 공유주방, 근남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메이드 토핑 공예교실 • 어린이 상상놀이터 • 1학기 배움 교실 • 육단리 토마토 친구연구회 채종체험 • 어린이 인문학 프로그램 • 어르신 생애주술사 • 생활 한바퀴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어린이, 주민, 지역주민, 어르신, 외국인근로자를 총 60여명 참여 • 문화복지사업에 근남초와 공유주방, 초성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소 적용 • 공유주방을 활용한 프로그램 활성화 • 한식, 토마토를 토 마늘 활용 수업 •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문학이수형 															

3-4.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농업인력지원공간'을 둘러싸고 나타난 공동체의 분열

13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 '지역공동체를 담지 못하는 도시재생사업' _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의 부조화

- ↳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요소는 지역성(Territory),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s), 공동의 결속감 (Common Ties)으로 물리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사회의 규모가 확대 분화될수록 공동체의 물리적, 사회적 괴리는 더 커지게 됨.
- ↳ 공동체 개념을 포함한 근 현대의 도시계획은 산업도시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물리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의 범위를 일치하고자 함. 도시계획은 사회변화에 따라 이상적인 공동체의 상을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와 계획 내용을 설정해왔음(신영호, 2000)

• '성공사례를 남기길 원하는 도시재생사업' _사업성과 위주 실적, 예산대비 효과를 보여주는 실적 필요

- ↳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 사업으로 3년 이내 종료, 3년 이내에 의사결정자들은 지역재생을 위한 답을 추구함. 다른 유사한 지역의 성공사례를 따라하면 성공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음.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도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답을 구하고, 행정은 예산을 따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함. 또한 정부는 전국 각지를 살리겠다고 성공사례를 찾기 바쁨.
- ↳ 새로운 시도를 하는 지역주민은 어딘가의 성공사례를 답습하지도 않았고, 정부지원제도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님. 사업수완은 항상 가설검증과정에서 나타나므로, 정책 당사자도 그게 성공조건인지 모름 때가 많음. 그럴 때는 예산확보도 어려움. 결론은 자력으로 돈벌이를 계획해야 하며 '성공사례'로 보여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됨.

출처: 기노사타 리포서(2022.05), 마을만들기 원상, 더가능연구소
 양지마을(2016), 한국의 도시지역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5.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농업인력지원공간'을 둘러싸고 나타난 공동체의 분열

14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 '마을 만들기'를 위한 과제 3가지_사업의 평가 기준

- ↳ ① 주인의 과제 : 주민 자질의 한계와 주민 대표성의 한계에 직면하게 됨.
 주민은 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행정상의 결정을 내릴 정도로 역량을 갖추기 어렵고, 일부지역에서는 이익에 얽매어 무책임한 권리주장으로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기도 한다. 참여주체가 대다수 주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
 ex) 1기 : 양지마을 시설후보 농가 운영 리더(농장주) VS 2기 : 양지마을 마을 상권 운영 주체 중심의 리더(상가주인)
- ↳ ② 진행 주체의 과제 : 참여주체의 역할
 행정이 주도하는 경우 가시적인 성과는 내기 쉬우나 주민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고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행정과 전문가가 주민이 지역의 과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일부 주민이나 행정중심의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짐. 함께 해 나가는 거버넌스 구축, 거버넌스 내 역할 상의 균형을 맞출 필요.
 ex) 행정의 도시재생사업주도, 협조적인 주민협의체 필요

마을상인A씨 "도시재생사업을 해도 마을 상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밥을 사주고 저해당에다 고래고기 이쁘다. 마을에 외국인 가수가 생기는 것을 반박하여 가수가 가시화 되면 공동이 표출될 것이다"

전 주민협의체 대표B씨 "도시재생사업이면서 힘든거는 좀 관여할수록 시민이 생활 호응하고 응원하는 게 힘들어요. 다 배워서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들도 자기일 때만 차원이 공간에서 나오는 거지 하우스 하구말고 주말에 가서 3시간 정도 있으면서 하구말고 하면 한순간에 한 번씩 하는 거야. 그 사업들은 힘들지 나트 힘들고"

출처: 기노사타 리포서(2022.05), 마을만들기 원상, 더가능연구소, 양지마을(2016), 한국의 도시지역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협동, 진보당(2019) 교육문화연구(2023), 내생마을만들기(2021)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자 인터뷰

3-6.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농업인력지원공간'을 둘러싸고 나타난 공동체의 분열

15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 '마을 만들기'를 위한 과제 3가지_사업의 평가 기준 (계속)

- ↳ ③ 행정적·제도적 과제 : 조례제정, 전담부서 마련, 지원센터 설치, 주민교육프로그램 실행, 사업비 지원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수립된 지역주민들이 재정적 제도적 한계로 구현되기 어려워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지역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줄 인식하고 있음. 외부 의존적, 하드웨어 중심적임. 단발적, 개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업의 통합이 필요
 ex) 재생사업으로 나타난 공유자산(커먼즈)이 일부에게만 공유되는 것이 아닌 전체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재영 신승철(2022) "공동체 상의 첫번째 목적은 커먼즈이다. 커먼즈는 행태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고, 특이한 것이 될 수 있는 구도를 드러낸다. 여기서 특이성은 공동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원천이다."

정윤성(2022) "지역주민은 지역의 '주체'임을 인식하기보다 공공서비스 수혜대상자로 인식한다. '위기는 인정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 되는 문제'라는 인식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내놓는 '제안'이라는 것은 그냥 용역보고서일 뿐이다. 이러한 비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실현가능성도 큰 구를 잡는 식이기 때문에 공유되지 않는다."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은 결국 지역의 '공동체성'을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

- 행정주도의 예산대비 목표, 성과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에서 탈피하여, 현안 문제를 넘어 지역과 사람을 담는 '공동체성'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와 실천으로, 더 나아가 거버넌스 형성될 수 있다.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 속에서 점진적인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3-7.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농업인력지원공간'을 둘러싸고 나타난 공동체의 분열

16

양지마을 '농업인력지원공간' 관련 지역공동체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 현 시점에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조성된 '양지마을 외국인 농업인력지원공간'의 필요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 수행
- 연구방법 : 2023년 11월 매주 목요일, 마을주민, 센터직원, 철원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IDI질적 연구방법 수행

IDI(In-Depth Interview) 질적 연구방법

IDI질적 연구방법

면접자와 연구참여자가 1:1로 만나서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심층적 탐구를 하는 조사방법, 비교적 민감하고 답변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룰 수 있음.

IDI질적 일정 (2023년 11월)

일자	11.2	11.9	11.16	11.23	11.30
지역	옥티	신원리	옥티	옥티	옥티
장소	센터	군청	센터	센터	센터
참여자	2명	4명	3명	2명	1명

연구참여자 특성

농민주민 3명, 마을주민2명, 센터3명, 공무원 4명

구분	연령대	소속	직업	성별
1	60대	주민	농업	남
2	50대	센터	현장지원	남
3	20대	센터	현장지원	남
4	50대	주민	주민	여
5	30대	센터	현장지원	남
6	50대	지자체	공무원	남
7	60대	주민	농업	남
8	50대	주민	농업	남
9	50대	주민	주민	남
10	50대	지자체	공무원	남
11	50대	지자체	공무원	남
12	50대	지자체	공무원	남

주요 질문

IDI질적연구 질문

구분	질문
도입	지역에 몇 년 거주하셨습니까? 양지마을에 대한 경험이나 추억이 있으십니까?
전반	양지마을에서 다음 중 무엇을 했을 때 주민들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주요	① 농업인력지원공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설문. 22문항) ② 현재 이루어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경험은 성공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양지마을 지역발전, 공동체 통합을 위해 지자체, 마을주민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8.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농업인력지원공간'을 둘러싸고 나타난 공동체의 분열

17

- 연구방법 : SPSS를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각 항목별 평균, 센터, 지자체, 주민 차이분석, 비모수적 방법의 독립표본 Kruskal-Wallis 수행,

신뢰도 분석 결과

설문조사 항목	신뢰도 Cronbach's α	문항수
농업인력지원공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 농업인력지원공간은 개인 필요, 시정 수준 - 농업인력지원공간을 통한 농업인력 공급 원활 - 농업인력지원공간은 경제적 이익 - 농업인력지원공간 운영은 마을에 도움이 될 - 농업인력지원공간 운영 정책은 중요함 -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필요	.627	5
농업인력지원공간에 대한 책임의 할애 - 지자체 책임이 있음 - 마을이 책임이 있음 - 지자체 참여해야 함 - 마을이 참여해야 함	.760	4
공동체와 소통 - 양지마을 공동체는 소통이 필요 -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930	2
농업인력지원공간에 대한 긍정 문화 전제 농업인력지원공간,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 한 정책으로 개인이 어려움 - 한 조직으로 운영 어려움 - 농업인력지원공간은 마을에 필요 없음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 - 공동체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에 대한 불편 인식 -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840	12
농업인력지원공간이 마을에 미치는 어려움 - 임대료 경제적 부담 - 기숙사-농장 간 접근성 불편 - 외국인 노동자 출신의 어려움 - 외국인 노동자 출신의 어려움	.731	6
농업인력지원공간에 대한 부정 문화 전제 - 임대료 경제적 부담 - 기숙사-농장 간 접근성 불편 - 외국인 노동자 출신의 어려움 - 외국인 노동자 출신의 어려움	.628	4
농업인력지원공간에 대한 부정 문화 전제 - 임대료 경제적 부담 - 기숙사-농장 간 접근성 불편 - 외국인 노동자 출신의 어려움 - 외국인 노동자 출신의 어려움	.794	10
농업인력지원공간에 대한 전체 인식	.821	22

평균 및 독립표본 Kruskal-Wallis검정 결과

구분	설문조사 항목	평균	표준편차	센터	지자체	주민	독립표본 Kruskal-Wallis
공동체	- 농업인력지원공간은 개인 필요, 시정 수준	3.08	1.084	3.33	2.75	3.20	.217(N.S)
	- 농업인력지원공간을 통한 농업인력 공급 원활	3.42	1.165	3.33	3.25	3.60	.258(N.S)
	- 농업인력지원공간은 경제적 이익	3.58	1.311	4.00	2.75	4.00	2.305(N.S)
	- 농업인력지원공간 운영은 마을에 도움이 될	4.50	.522	5.00	4.00	4.60	6.600**
	- 농업인력지원공간 운영 정책은 중요함	4.42	.669	4.33	4.25	4.60	.795(N.S)
	-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필요	4.42	.793	5.00	3.75	4.60	4.400(N.S)
	- 지자체 책임이 있음	3.92	1.165	3.67	3.25	4.60	2.830(N.S)
	- 마을이 책임이 있음	3.33	1.073	4.33	2.75	3.20	4.103(N.S)
	- 지자체 참여해야 함	3.58	1.165	3.33	3.00	4.20	2.103(N.S)
	- 마을이 참여해야 함	3.42	.996	3.67	3.00	3.60	1.432(N.S)
	- 양지마을 공동체는 소통이 필요	4.33	.888	5.00	3.75	4.33	3.619(N.S)
	-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4.33	.778	4.33	3.00	3.58	4.331(N.S)
부정 인식	- 한 정책으로 개인이 어려움	3.50	.905	4.33	3.00	3.40	4.162(N.S)
	- 한 조직으로 운영 어려움	3.58	.996	4.00	3.25	3.60	.884(N.S)
	- 농업인력지원공간은 마을에 필요 없음	1.92	1.240	2.00	1.75	2.00	.263(N.S)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	2.08	1.240	3.00	2.50	2.60	4.760(N.S)
	- 공동체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에 대한 불편 인식	2.92	1.443	4.00	2.25	2.80	2.753(N.S)
	-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2.58	.900	2.33	3.00	2.40	1.381(N.S)
공동체	- 임대료 경제적 부담	2.67	.778	3.00	2.50	2.60	1.051(N.S)
	- 기숙사-농장 간 접근성 불편	4.08	1.165	3.00	4.00	4.80	3.707(N.S)
	- 외국인 노동자 출신의 어려움	4.08	.900	3.67	4.00	4.08	1.327(N.S)
	- 외국인 노동자 관리의 어려움	3.92	.996	4.00	3.50	4.20	1.745(N.S)

3-9.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농업인력지원공간'을 둘러싸고 나타난 공동체의 분열

18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 가는 마을 리더 인식 조사

①-1 현 주민협의체 대표 VS 기존 주민협의체 대표

1 **현) 주민협의체 대표 (농장주)**

- 육단2리 마을회 이장, 마을의 의견 수렴기구인 주민협의체 대표, 새롭게 교체된 리더
- 3월 이후 주민협의체 공식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음. 11월 부터 1회 추진
- 새로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농업인력지원공간을 운영하려 했으나, 이장협의회의 의견 들은 후 운영 포기

• 마을 내 새로운 기반시설이 생기고, 새로운 토대와 변화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분열을 막기 위해 현재 시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농업인력지원공간'을 둘러싸고 사업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고민 속에 있음. 운영 주체의 부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운영은 어려움 실정

• 여담이나, 아담이나, 진보나, 보수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을일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함 (김상철 외 2014:92-94)

2 **전) 주민협의체 대표 (농장주)**

- 2019년부터 소규모 재생사업,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
- 노인, 마을 주민의 잘못된 오해로 이장 및 주민협의체 박달, 전 이장, 전 주민협의체 대표
- 농업인력지원공간 운영에 대한 노하우, 의지가 있으나, 갈등 반목으로 스스로 타자와 되어 농업에만 집중

• 마을 내 참여자와 비참여자 속에서 공동체 간의 긴장, 정치적 문제로 직위를 박탈당하고, 현재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 행정 문서상의 제한이 보이지 않는 배제의 선(線)을 만들어내고 마을내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이 공간에 진입하는 것을 의도치 않게 차단 (백경성, 2018)

• 특이성에 기초한 공동체의 존재론적 사유와 성찰 부재(로자 외, 2017:148-151)를 전혀 고려하지 못함

3-10.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농업인력지원공간'을 둘러싸고 나타난 공동체의 분열

19

양지마을에서 사회적 교류 및 주제적 실천을 수행하는 주민 대상 인식조사

①-2 현 주민협의체, 마을회 활동 주민 VS 일반 노인대학 봉사자 주민

3 현 주민협의체 임원

- 과거 육단2리에서 주점, 술집을 운영하여 생활경험 다양함, 과거 재생사업에 대한 관심 없었음
- 마을을 기존 조직들이 잘못 만들어 놔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다님
- 현재는 주민공동사업, 다문화 음식만들기 프로그램 등 도시재생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
- 가장 기존 조직을 욕하기도 하지만, 사업 참여 후 내용을 알게 되면서 잘못 인식했다고 인지

- 비참여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전환한 인물, '소통'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바우안 2009)에 의해 사업 참여
- 공유의 장이 되는 '농업인력지원공간'이 본인 삶의 이력과 밀접한 관련이 없으므로 공간의 운영에 대해서는 '힘든 일' '지자체 책임' 으로 인식
- 나눔의 장이 되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 다문화 가족, 마을내 주민과의 음식 나눔을 주도적으로 수행, 나눔이 큰 정체성으로 보여짐

4 지역 노인대학 봉사 주민

-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 봉사, 나눔, 지역사회 돌봄에 앞장서고 있는 주민
- 주민협의체 및 공동체 활동에 나서지 않음, 철원군, 연사무소, 종교시설 등에서 후원 받아 노인대학 운영
-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마을이 가시적으로 변화 하였다는 데 긍정적 평가 내림

- 비참여자, 신자유주의 질서가 개입되지 않는 느슨한 공동체와 친밀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인물
- 정치화 되지 않은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어려운 약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음
- 양지마을은 일상의 삶이 진행되는 곳으로서 예약의 장소로서 활용되고, 공간이 품은 시간들을 삶의 경험 속에서 이해(이푸 푸안, 2021)

3-11.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농업인력지원공간'을 둘러싸고 나타난 공동체의 분열

20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 관련 행정적 지원조직 인식 조사

①-3 철원군 담당공무원 VS 양지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5 철원군 담당 공무원

- 당초 농업인력지원공간의 운영을 주민조직에 위탁하려 했으나, 조직이 위해 되면서 운영에 차질
- 농업인력지원공간을 대부하기 위해 공고를 올려 놓은 상태임.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 종료
- 주민조직이 못하면 관련 '농업'이나 다른 조직 활용, 다른 접경지역내 유류부지를 활용한 외국인 기숙사 추진

-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현실에서 명백히 하향식 행정을 주도, 행정 문서상 마을과 공동체 활동의 총괄 지점, 공동체를 문서의 도구로 인식
- 사회적 실천으로서 공동체는 관리, 육성, 배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을 통해 만들어질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려, 공동체 되기-혹은 발명에 대한 성찰은 부재함 (박경섭, 2018)

6 양지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 2023년 3월 부터 주민간 갈등을 목도하고 같이 겪음
- 농업인력지원공간, 행사방 운영조직이 설립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로운 리더조직을 활용하여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 않지만, 주제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실정
- '양지마을 물물이기' 사업을 통해 지붕 색칠, 단번락 보수, 페인트 활동을 통해 마을을 정비하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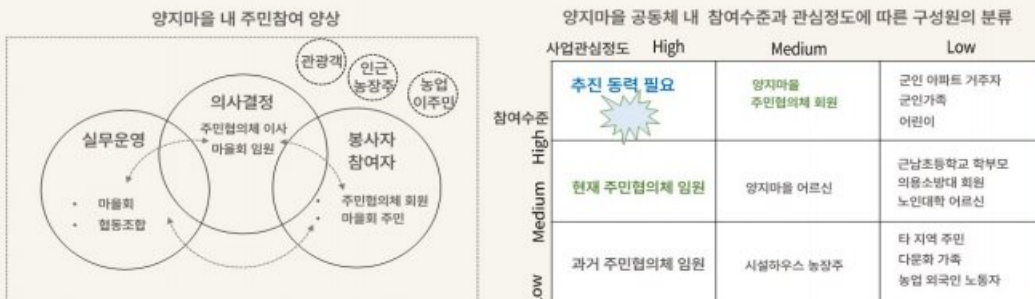
- 현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중간지원조직으로 공동체와 지자체의 입장을 모두 알고 있음
- 공동체를 대하는 입장이 행정주도적 관점에서 공동체 주도적으로 변화하였고, 공동체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 정치적 주민의 모임, 비정치적 주민의 모임, 주거 노동, 소비, 유희의 공간과 점유자들, 그리고 이를 선점하려는 주체들 간 이해관계 파악
-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격을 매우기 위해, 내재적인 자유주의를 도모하면서도 초월적 전체주의와 파시즘을 동시에 극복하지 않으면 안됨(박경섭, 2018)

4-1. 지역재생을 위한 인문학적 돌봄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21

양지마을 공동체의 구성

- 양지마을 공동체를 드나드는 사람은 마을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으로, 리더그림으로서 의사결정집단, 실행 집단으로서 실무운영집단, 일반 참여자로서 봉사자집단이 존재하며, 그 외 마을에 방문하는 관광객, 사업의 이해관계자인 농장주, 농업 외국인 근로자가 존재
- 이들 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수준을 고려할 때,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추진 동력이 부족한 상태



출처: 김재민-주홍수(2020), 양지마을공동체는 어떻게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었는가? 새로운 참여자와 기존 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107호, p.54. 그림1을 도대로 발표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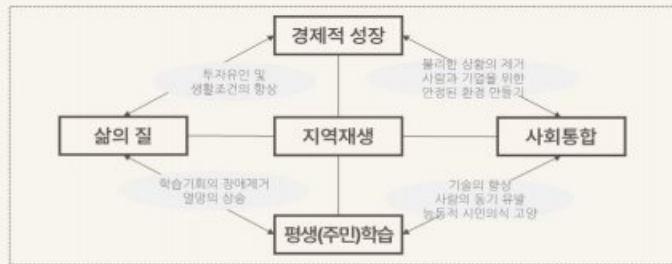
4-2. 지역재생을 위한 인문학적 돌봄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22

도시재생사업에서 교육학적 관점의 지역재생의 의미

- 도시재생사업에서 교육이나 학습을 통한 접근은 사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강력한 리더그룹이 사업을 추진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평생학습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은 평생학습을 수단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역사회개발을 목적으로 함.
- 지역주민의 변화 기제로서 교육과 학습의 기능을 활용한 기능은 지역사회개발과 지역사회운동의 관계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남.

학습이 지역재생을 촉진하는 과정 (Barnsley 모델; Yarnit 2000)



출처: 박경은(2013), 지역재생사업에서 지역사회의 교육현상과 특성에 관한 연구, 동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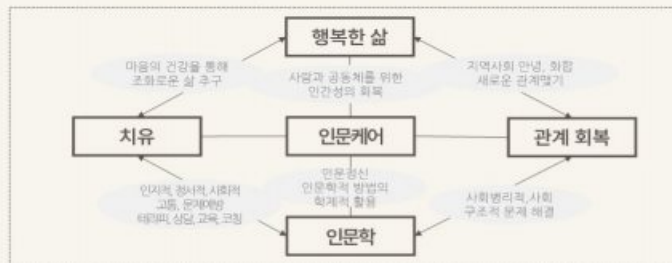
4-3.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인문학적 돌봄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23

도시재생사업에서 인문케어적 관점의 필요성

- '사업이 된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를 담은 사업'이 되기 위하여, 포용적 공동성의 가치 하에 각 개인의 특이성을 담을 수 있는 인문케어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
- 『인문치료』란, 인문학적 정신과 방법으로 마음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인문학 각 분야 및 연계 학문들의 치료적 내용과 기능을 학제적으로 새롭게 통합하여 사람들의 정신적·정서적·신체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이론적·실천적 활동이다.

인문케어를 통해 사람, 공동체에서 나타난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



참고: Barnsley 모델과 육강하 외(2017), 인문치료의 이해, 강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12-20.의 내용을 토대로 발표자 도식화

4-4. 지역재생을 위한 인문학적 돌봄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24

도시재생사업에서 인문학적 관점의 필요성

①-1 인문케어의 대상

“인문치료는 특정 집단 혹은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가 될 수 있다. 사회적인 문제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개인은 물론, 사회집단 혹은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 불행으로 야기된 공동체의 분열은 결국 추진조직의 해체, 주민 간 오해와 다툼으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기존 리더그룹과 고통받은 공동체를 대상으로 치유적 접근이 가능하다.

①-2 인문케어의 도구

“인문치료를 위해 활용되는 인문학적 도구는 고통에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을 표출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생각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제반기법의 총체로 전통 인문학에서 활용해 온 읽기·쓰기·말하기와 음악·영화·연극미술 등 표현 예술적 기법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체계다.”

- ↳ 인문케어 표현 예술기법을 활용하여 소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며, 참여를 위한 마음가짐,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의 선택과 활용, 이를 활용해서 말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현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의견을 표출하게 하며, 생각의 전환을 유도한다.

참고: 김이진(2012), 자활교육과 인문치료의 필요성, 2012 인문치료와 자활:자활, 인문학과 통하다 인문치료 포럼 발표자료집, P.23-29

4-8. 지역재생을 위한 인문학적 돌봄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28

■ 양지마을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향후 과제

- ▶ 하드웨어, 과업의 수행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인정
 - 물리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성과 도출을 위한 과업 수행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수행되었고, 이를 한계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 '사업 중심 공동체' 내의 균열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지역재생사업'으로의 변모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 사업추진과정에서 변화하는 '지역 공동체성'의 속성 인식 / 지역에 적합한 공동체성의 형성 및 회복 노력.
 -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 사업 이전의 지역공동체는 지역발전이 멈춰버린 쇠퇴해가는 지역을 보면서 상실의 아픔을 겪었음
 - 이주민, 파남민이 모여 살던 곳에서 이제는 시살하우스 농업을 받아들여서 농업 위주의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이 되었음
 - 지역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공동체의 속성을 인정하고, 적합한 공동체성의 형성을 위한 노력 중요
 - '따로 또 같이' 지역에 거주하는 공동체의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기 위해 논의해야하는 문제들을 주민주도적으로 발굴
 - 이를 위해 남은 사업기간 동안 변화하는 공동체성을 담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

4-9. 지역재생을 위한 인문학적 돌봄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29

■ 양지마을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향후 과제

- ▶ 양지마을 공동체의 소통, 나눔, 공유, 연대 등과 같은 인문학적 가치 인식과 공동체를 위한 인문케어 추진
 - 지역공동체 인문케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사람, 공동체' 중심의 소통의 기회 확보
 - 프로그램 속에서 문학, 미술, 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작품을 통해 나의 상실, 고통, 갈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나를 새롭게 인식하고, 나의 삶과 공동체에 대한 주제적 인식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
 - 지역사회 상단, 코칭, 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유형 세분화로 전략적 기획을 통한 공동체 성의 재구성 노력
 - 현 공동체가 처한 환경적 맥락을 이해하고 소통, 나눔, 공유에 대한 가치 재정립, 또한 연대의 길을 모색
- ▶ 양지마을의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단계별 운영 전략 필요
 - '양지마을 리더그룹에 대한 비전 공유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필요,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 소통 프로그램 운영
 - '마을에 머무는 정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각종 모임을 통한 우연적 경험 학습 수행, 느슨한 공동체를 통해 지역에 관계 맺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 적극적 참여자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업 외국인 노동자, 주민을 위한 '다문화 수용성'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마을 축제, 행사 등 계획적 참여학습기회 제공,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아카데미형 교육 수행

5. 참고문헌

30

강병규 외(2023), 인문사회 학술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문명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인문사회 학술의 역할과 방향 재정립,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연구재단.

기노시타 히토시(2022), 마을만들기 환상, 더 가능 연구소.

김선희 외(2011), 인문지리의 이론과 원리, 인문지리총서 7, 도서출판 산책.

김영규(2019), 근남&근남사람들 : 최근 100년 근남면 마을이야기, 칠원군 근남면사무소.

김정희외(2023), 내 생애 아름다운 이야기, 칠원군 양지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김혜민·주종용(2020), 칠이슬마을공동체는 어떻게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었는지? : 새로운 참여자와 기존 구성원의 역할변화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107호.

박경섭(2018), 공동체 만들기의 정치 : 이념, 담론, 실천, 인문학 연구 제 55호, 조선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박주형(2013), 도구가 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제 23권, 한국공간환경학회.

박병준(2012),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지역사회연구 제20권 제2호, 지역사회연구학회.

방정은(2013), 지역재생사업에서 지역사회 교육현상과 특성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여경수(2021), 국제연합 해비타트 III의 새로운 도시의제에 비추어 본 도시재생법제의 과제, 일감부동산법학, 제2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유강하 외(2017), 인문지리의 이해,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한국문화사.

윤택림(2019), 역사와 기록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도서출판 아르게.

홍상순(2023), 시니어 인문케어 프로그램 적용사례, 절경지역권, 11월 월례학술발표회 발표자료.

이현나(2023), 칠원 어르신 생애구술사 회의록 4회차,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

이한나·김승희(2022), 지역재생을 위한 농촌공동체의 변화와 협력: 칠원군 양지마을 농업인력지원공간 조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 61집 2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정성훈(2022), 가족과 국가 이후의 공동체, 인천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보고서.

정윤성(2022), 지역재생의 진실, 심크 스마트.

철원군(2022), 『(첫)김화군 향토지』, 상, 下.

허르트무드 로자 외(2017), 공동체의 이론들, 라움, 2017

황익주 외(2016), 한국의 도시지역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Yarnit, M.(2000), *Towns, Cities and Regions in the Learning Age : A Survey of Learning Communities*. London:LGA Publications for the DFEE, NCA.

